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 2017

VOL. 248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ear S3

Frontier | Classic

A Watch That Can Do More*



Additional watch straps are sold separately
*Know more at www.samsung.com/id/gears3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¹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BE INSPIRED 2017



KMK GROUP

2017
SPRINGTIME



사은 행사 UP TO IDR 350,000
200/500/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Terms & Conditions Appl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Service Lounge (2F)

스페셜 바자

UP TO
70%

2017 제1회 롯데 골프 대전
(1월10일 ~ 2월12일) | GF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등

매트리스 특집전
(1월11일 ~ 1월22일) | 3F
브랜드: 누디진, 멜리사,
수페르가, 칩 먼데이, 등



Fun 아트리움 | 3층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미니 놀이 공원

• 애니멀 라이드 • 트램폴린 •



2016년 27회

KOGA 총회 및 한인 봉제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찰 세미나



kotra

• 일시 : 2016년 6월 1일 (수) AM 10:30

• 장소 : HOTEL KARTIKA CHANDRA KIRANA BALLROOM



KOGA는 모든 회원이 주인입니다

KOGA는 재인도네시아 봉제인들이 선·후배간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따뜻하고 건강한 화합의 장입니다.





**OPEN FOR
REGISTRATION**

For 2017/2018
Academic Year



익투스 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인성 개발 등을 강조하며 잘 짜여진 교과과정과 확고한 가치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며, 기업에서 필요한 협동과 조화 등 사업적인 재능을 발굴하여 스포츠와 피트니스, 공연 및 시각 예술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Addres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 Jakarta Selatan 12430 |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2 No. 11, Sunrise Garden - Jakarta Barat 11520 | T: +62-21 581 2228

OPEN HOUSE

25 Feb & 28 Apr 2017

9am to 12pm

E: ichthus_sij@cbn.net.id

www.ichthusschool.com

**KANA 가나
RESTOLOUNGE**

**케터링 (Catering Service)
퀵 도시락 (T/A)**



가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케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인이상 맞춤형 이벤트 환영
돌잔치, 집들이, 골프모임, 피로연, 동문회 등

메뉴 : 불고기, 잡채, 모듬전, 샐러드류 한방 갈비찜,
김밥, 초밥, 수육, 떡볶기, 새우요리 및 씨푸드 등의 전통 한정식

디저트 : 식혜, 수정과, 콕탈(화채), 모듬떡, 시즌과일 등등.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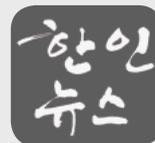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소위 가격대비성능을 뜻하는 '가성비'라는 신조어가 2017년의 키워드라고 했다.
현금과 시간에 만성적으로 쫓기는 이 시대가 낳은 소비습관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화될 것을 예고했다.

누군가의 주장이나 물이식 발언에 근거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정보소비습관이 생긴 것은
한편으로 스스로 조절능력을 갖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정보 전달자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
조직생활이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풍조인 듯하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10 편집위원 칼럼 / 편집위원 최인실
-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제6화 경제에 매달리다
- 22 신성철 칼럼
- 24 집중! 이 사람 / 인우회 이종윤명예회장
- 27 공감 <조현영>
- 28 포토뉴스
- 30 JKS 소식
JIS 소식
- 35 길리 뜨리왕안 <이승진>
- 36 이색 자격증
- 38 집단빙의 <배동선>
- 42 박상훈 칼럼
- 44 김응옥의 경제이야기
- 46 월간뉴스 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50 일성록 <오향녕>
- 52 지상갤러리 <권미선>
작가 김기주
- 54 행복에세이 <이태복>
- 56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60 인도네시아 민법 <이승민>
- 64 김종성의 생활법률
- 66 자카르타의 또 다른 허니문 <엄재석>
- 69 생활정보



'우리 애들이 말타기하고 놀았으면 좋겠네' <이해경>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가짜 뉴스, 책임은 누가?

글: 최인실 /편집위원

멋지게 포장한 잘못된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확산되어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매체인지 그렇지 못한 매체인지, 옳은 정보인지 그저 홍보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가 투표가 실시 되기도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을 좌초시킨 가짜뉴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IT업계의 방어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다. 오바마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의 대표적인 IT 업체는 현재 중국과 유럽에서 그다지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

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업들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국민들은 지난 미 대선 때 무정부적이며 서로 양분된 진영들간의 소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페이스북에 대한 논쟁은 유럽으로 번졌다. 유럽 연합은 지속적으로 거짓 뉴스를 확산해 내는 이들 소셜 미디어 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은 그들을 통해 확산된 거짓 뉴스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대가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독일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17년부터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이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만 유로(한화 약 6억2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논쟁이 쉽

사리 사라지지 않을 듯 하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6천만명의 사용자가 매일 거짓 뉴스, 날조된 뉴스를 보고 있다. 아구스 수디비오 인도네시아 뉴미디어 워치 대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의 페이스북 사례에서 인도네시아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그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거짓 뉴스 내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낸 사람뿐 아니라 이를 확산시킨 소셜 미디어에 책임을 묻는 것에 주목했다.

이런 점이 인도네시아와 미국 또는 유럽 연합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뉴스 확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것은 누가 이런 기사를 만들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만 국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들의 책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들에게만 법의 제재가 맞춰져 있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 소셜 미디어 사업자,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검색 엔진 등이 동일한 범주에서 동일하게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구스 수디비오 뉴 미디어 워치 대표는 폼빠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미디어 매체가 책임을 추궁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를 축구장에 비유하여 축구를 하는 선수들간에 문제나 갈등이 생긴 것을 축구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입법부 관계자들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란 단어 중 소셜이란 뜻이 이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 우리들은 이 축구장이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축구장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통해 수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업기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이런 사실로부터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짜로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다. 소셜 미디어 역시 상품화라는 우선적 동기를 가진 경제적 단체라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자신들에게 남겨진 데이터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는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큰 권력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권력과 책임감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근거지를 둔 소셜 미디어에 유럽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다.

아구스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개발은 늦었거나 아주 늦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개발하는 것은 이 두가지가 어느 한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가 얼마나 전략적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의무사항이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와 브라질은 이미 그들만의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들 국가들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그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대하는 방식이 극단적일 수도 있어서 한국의 경우를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아구스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만의 검색엔진 네이버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의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디지털 지배자가 되지 못했다며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는 거짓 뉴스들 때문에 종종 혼란을 겪기는 한다. 소셜 미디어도 깊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팩트와 거짓 뉴스를 구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IT강국은 강국인 모양이다. 외국언론에서 우리를 본받자는 내용이 자주 눈에 띄는 걸 보면...

국가적으로 여러 악재가 있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참고> 폼빠스, 연합뉴스



대사의 일기 제16화

“경제에 매달리다” (3)

지난 호에 이어

대사직을 결다

이 접견이 대통령궁이 아닌, 왜 할림공항(당시 대통령 전용비행장)이냐고 의아하게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대표단의 SBY 접견이 성사되지 못할 뻔하였다. 접견 일정 은 우리 대표단의 출발당일 5.2 11:00로 잡혀있다. 그러나 지방 여행 중인 SBY가 5.2 오

후 아니면 그 이후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4.30 오후였다. 실제 대 통령 궁으로부터 우리 대표단이 5.2 몇 시 출발하는지 문의 전화를 받은 후 나의 머릿 속은 하얗게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난 해 SBY 한국방문이 거듭 연기되면서 고민하 던 일들이 순식간에 나를 엄습하였다.

나는 산자부 장관이 인솔하고, 대규모 고위 경제대표단으로 구성하며,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도록 건의하는 등 한국이 가진 최대 의 패를 내도록 주선한 장본인이다. 만일 대 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경제 대표단은 물론 우리 정부도 주재국으로부터 한국 측 성의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았 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나로서는 감당 하기 힘들다. 산자부 장관도 걱정이 되는지 카운터파트인 경제조정장관에게 SBY 접견 건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나는 외교부, 경제조정관실 간부들에게 SBY 접견이 성사되지 못하면, 더 이상 대 사직에 머물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위협?) 하였다. SBY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안보

보좌관에게 전화하여 만약 한국 대표단이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체면, 우리 기업들의 실망감 때문에 자카르타를 떠나야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Susilo Bambang Yudhoyono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그날 밤 11:00 디노 잘랄 SBY 안보보조관 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5.2(수) 13:00 자카르타로 돌아오나 대통령궁으로 가지 않고 자카르타 근교의 私家로 가서 개각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5.2 오후 할림 공군기지에서 만나는 것도 좋으냐고 물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나는 좋다고 바로 응답하였다. 그날 밤 디노 자랄 안보보좌관은 여러 차례 전화하여 나를 끝까지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해준 데 대하여 아직까지 깊이 감사하고 있다 (디노는 그 후 주미대사 역임). 내가 경제대표단과 함께 SBY 접견을 마치고 나오다가 외교부 간부를 만났더니 그 간부는 대사께서 이제 자카르타를 떠나지 않아도 되겠다고 농담을 건넨다.

나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즉 경제대표단의 방문이 실현되기 전에도 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바로 한국 산자부 장관이 오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산자부 장관이 당초 약속과 달리 4월 말 우리 기업들을 인솔하여 오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대사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직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내가 대사로서 주재국 외교부 장관, 경제 조정장관, 산림부 장관, 대통령 보좌관(당연히 대통령 및 부통령까지 보고되었을 것임) 등 정부 인사는 물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포함 경제 단체장, 기업인, 심지어 현지 언론에 까지 광범위하게 직접 전달하고 홍보한 사람으로 동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말 사직할 각오였다.

우리 산자부 장관도 공항 도착하면서 이 대사의 강한 push 가 있었고, 이미 SBY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황에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우디로 가느냐 인도네시아에 오느냐하는 문제로 끝까지 고민하였다는 후문이다.



노무현대통령

이번 방문의 성과가 참가한 양국 기업인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한국 언론에 알리고 (동아일보 2007.5.22.자 나의 기고문), 현지 언론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 하였다. 방송, 신문 인터뷰도 하였다. 또한, 방문 성과 progress report (영문)를 작성하여 주재국 외교부 장관, 경제조정장관, 대통령 안보보조관 앞으로 발송하였다(서한별첨). 나의 대사 임기 중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과 한국 경제대표단의 방문에 가장 공을 많이 들었다. 방문단이 떠난 후 나는 “대사 임기가 2년이 지났다. 이렇게 살아난 양국 간의 분위기, 특히 업계의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가 남은 1년의 과제”라고 일기에 적고 있다.

4. SBY 한국 방문 (2007.7)

7.2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SBY 한국 방문 일자 7.23(월) - 26을 통보받았다. 이번에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는 방문하지 않고 한국만 왔다가 인도네시아로 귀국할 예정이며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올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말 노무현 대통령과 금년 봄 대규모 한국 경제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지는 SBY의 한국 방문이다. 대규모 기업인들이 함께 오는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기업인 교류 분위기를 계속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정부(외교부), 언론 및 국민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에 잡혀있는 20 여 명의 인질 사건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1) 방문 준비

SBY 방한 관련 일정과 의전은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챙기는 문제인 만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정상회담의 의제, 즉 성과 사업(substance)만 만들어내면 되는 만큼 그만큼 수월하다.

나는 SBY 방한 성과사업으로 두 가지를 목표로 두었다.

첫째,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이다. 노대통령 및 경제대표단의 방문을 통하여 기업인들의 교류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내가 특별히 할 일은 많지 않았다. 다만, 서울 회의가 기업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자카르타에서는 대사관이 준비하는 만큼 “기업 대 기업” 위주의 방식이 되도록 하였으나 서울에서는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돌아갔다. 회의를 준비하는 정부 실무진들이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방식으로 나는 불만이다. 그러나 나의 권한 밖이다. 둘째,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기초공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 협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IT 산업 협력 분야는 대사관이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었다.

나는 SBY 방한 일정이 확정되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가장 먼저 찾았다. 내가 국방장관을 만나 최근 대규모 한국 경제사절단이 방문하여 통상, 투자, 인프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방산분야에서만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방산분야 협력에 장관의 추동력을 기대한다고 하자, 자신도 SBY 방문단에 참여할 계획이며 다수의 방산 업체도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당시 한국은 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4 개 방산 분야에서 공동 생산을 제

의한 후 인도네시아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KT 훈련기와 잠수함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체에서 꾸준히 접촉하고 있었다. 나는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여러 차례 권하였고 국방장관도 방한에 많은 흥미를 보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번에도 SBY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국방장관 재임 5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본인의 의도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군부가 학자출신인 장관을 견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 CEO의 횡포

두 번째로 만난 각료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기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은 초보단계이고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생기기 시작하던 즈음이다. 나는 한국의 원자력 담당 공사인 “한국 수자원공사(한수원)”로 하여금 원전사업에 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농업, 의료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얼마나 유용한지, 원전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 한국의 경험을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는 SBY 방문계기에 원자력 협력에 관한 진전이 있기를 바랐고, 인도네시아 측도 SBY 방한 중 해당기업(MEDCO)과 한수원 사이에 MOU체결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체결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한수원의 상급기관 한국 전력 사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전사장이 자카르타 방문 시 만난 인도네시아 “고위층의 친척”으로부터 인니 측 기업(MEDCO)에 대한 폄하 발언을 듣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대사의 공식 건의보다 “인니 고위층의 친척”의 한마디를 중시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대사관 상무관을 통하여 산업자원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산자부가 사장을 설득하여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MEDCO는 김이 크게 빠졌다. 대사관이 주재국 과기부와 MEDCO에 대하여 들인 공이 하루 아침에 날아갔다. 내가 MEDCO 그룹의 사장(오너 사장)이라면 “한수원”을 신뢰하여 원전건설이라는 대규모, 장기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그 외 무역부 장관, IT 담당 정통부 장관, 국영 석유공사 사장 등을 만나서 SBY 한국 방문 계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 사업도 있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일행에게 한국 영화진흥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서울이나 근교에 촬영 스튜디오가 있으면 방문하고 싶다는 무역부 장관의 요청이다. 또한 체육부 장관, 체육회 회장(후에 IOC 위원이 됨),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 회장으로 부터 한국과의 체육 교류 및 협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H.E. Dr. Boediono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Jakarta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provide herewith for your reference a copy of the "Progress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Visit by the Korean Business Delegation to Indonesia" early this month (April 29 - May 2, 2007). The report is preliminary : the Embassy has selected major projects and conducted initial telephone surveys with Korean business representatives mainly residing in Indonesia.

Although this is only a preliminary survey, its findings that the business communities in both Korea and Indonesia have already taken steps to follow up on the commitments made at the Task Force sessions, as referred to in the Progress Report, are encouraging. I am confident that they intend to make full use of the upcoming visit to Korea by H.E.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to identify possible ways to advance their business activities. I am at Your Excellency's disposal should you have had any enquiries with regard to the Progress Report.

Taking this opportunity to renew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nd extend my best wishes for your good health and happiness, I remain,

Sincerely yours,

(2) SBY 한국 방문

SBY가 7.23 도착하였다. 당시 한국은 7.19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23명의 인질사건으로 인하여 외교부, 아니 나라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다. 공항 영접도 김호영 외교부 차관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도 인도네시아 의전이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자칫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면도 있었다. 그 중 7.25 15건의 MOU 서명식에 인도네시아 측은 대통령을 포함 경제조정장관(경제부총리) 및 수행 각료들이 전원 참석하는 데 한국은 기업만 참석하고 산자부장관을 포함하여 각료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귀국하기 전부터 몇 차례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인질사태 관련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장관실을 밀고 들어가서 MOU 서명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라도 참석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서명식도 참석하고 오찬에도 참석하여 겨우 체면이 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카르타 방문하여 경제인 오찬에 참석하였을 때 부통령, 경제조정장관 이하 다수의 장관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의전이 너무 서구화되었다는 느낌이다. 동아시아 인접국 정상은 방문한

경우, 예외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인상을 주면 그 외교적 파장은 심각하고 오래 간다.

노무현 SBY 정상회담 (7.24)

정상회담 배석인사는 한국 측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자부장관, 백종천 외교수석,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조정장관, 외교부장관, 에너지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 장관, 국회의원 및 KADIN(상공회의소) 의장이다.

노 대통령이 먼저 환영인사와 함께,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후 정부 차원의 대책반(T/F) 설립, 경제인의 파견, 민간 차원의 양국관계 발전 방안 연구 등 관계발전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SBY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SBY는 무역, 투자, 에너지, 노동, 기술협력, 관광협력, 영화산업 진흥 지원, 문화/체육 교류, 반부패 협력 등을 하나하나 집어 나갔다. 또한 방산협력 관련 KT 훈련기 구매, 기술 협력 및 공동 생산 방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양국의 실무위원회 간에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인질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 서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노 대통령은

THE JAKARTA POST
(5049-26, 267, P. 13)

Korean firms to invest up to \$8.6b in RI projects

Handover to Korea
The Jakarta Post
A fact of the partnership agreement signed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leaders late last year, a number of companies from the north Asian country agreed to invest in Indonesian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jects worth nearly \$10 billion.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for the projects, which would last through 2010, was witnessed by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and South Korea's Prime Minister Han Dong-hoon.

The two leaders said that the deals are very important, that the agreement signed last December was well on track, but also served as another milestone in the two countries' growing economic relations.

"These business agreements are quite important for Indonesia because, if they are implemented, they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 which will, in turn, help us overcome the unemployment problem," Yudhoyono said after the signing ceremony.

One of the agreements will provid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anjin-Corpus Dam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project in East Kalimantan at a cost of \$1 billion.

The Korean company will cooperate with Indonesian PT PT Hoesan Cipta Cid Investment in carrying out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road infrastructure project, Korea and Indonesia will also work with state-owned Hoesan Cipta Cid Investment to develop a coal liquefaction plant in East Kalimantan.

The other major projects include the development of a new residential terminal worth \$800 million on Tanjung Api-Api in South Sumatra by a Korean consortium led by Hoesan Company Ltd and local firm PT Pitra Indonesia.

LG subsidiary LG will form a joint venture with local firm Pertamina to build a natural gas liquefaction plant worth about \$1 billion in South Sumatra.

The investment plans have been well thought out and the two sides will work together with their implementation. We will facilitate these projects so that they are provided as expected," Trade Minister Han Min-Pyo said.

The trade minister added that there was no plan to date to provide special incentives to speed up the implementation.

Meanwhile, in the question of nuclear, Korea, state-owned firm Hoesan National Oil Corporation will invest about \$30 million on a number of oil and gas exploration projects.

"They will be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Indonesia state oil and gas company PT Pertamina. The state firm part of share of nuclear power plant to enter th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igned during the visit of South Korea President Roh Moo-hyun to Jakarta in December.

Arranged for a meeting of bilateral ministers, Yudhoyono arrived in Seoul on Monday evening for a three-day visit. The heads of state agreed to do all industry projects in the framework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Handover to Korea
From \$1 billion to \$1.2 billion for the transportation of coal to East Kalimantan, with annual growth averaging 10 percent.

SBY가 제기한 무역, 투자, 한국 내 인도네시아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전략적 중점 협력 분야로 원자력 협력과 방산기술 협력을 제기하였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다른 교역이나 투자 문제와 달리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잠수함 기술 협력을 들어 설명하였다. “잠수함 기술 협력의 경우 선박 조선 기술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기술을 우선시 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은 조선기술, 무기 기술, IT 기반 무기 통제 기술 순서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기술, 가격, 품질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에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잠수함 수주를 받아 건조하고 있다. 그 기사를 볼 때 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노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SBY 이슬람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전화

SBY는 서울 공항 대기실에서 환송 나온 김호영 차관(나의 후임 주인도네시아 대사) 과 내가 보는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주재 자국 대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귀국직후 한국을 적극 도우라는 지시를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같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종교인들과는 상당한 연결망이 있다. 이 나라 장관중의 한 사람은 자신이 대학생 때 소련 군 치하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을 도우러 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한국인들을 납치한 반군과의 직접적인 연계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납치 무장단체가 한국인 석방문서 서명할 때 국제적 증인으로 택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대리였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종교단체들도 납치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납치된 사람들이 풀려난 후 노무현 대통령은 SBY에게 전화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나는 여러 이슬람 단체들에게 감사 서신을 보냈다.

혹일담

SBY의 한국 방문은 1974 년 이후 30 여년 만에 이루어졌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납치 건 때문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우리 언론은 SBY 방한에 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TV에서도 보도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SBY 방한에 관하여 우리의 최대일간지 c 신문의 뉴스 검색을 하였다니 7.22 “방한 인니 대통령에게 전통 사경 선물” (연합), 7.24 ”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한국과 ‘각별한 인연’ “, 7.25 “SK 에너지. 빠르게 떠나와 해외시장 공동 진출 “(연합) 3 건만 검색되었다. 동남아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5. T/F 점검 회의 (12.17-18)

2006.12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양국 정부는 특별대책반(Task Force)을 만들어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만드는 한편, 여러 차례 큰 규모의 경제인 교류 행사를 가졌다. 4월 한국 경제대표단 자카르타 방문, 7월 SBY 방문에 동행한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의 방한, 이어 8월말 인도네시아 100 여명의 지방경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정상 방문이나 경제인 교류 때 마다 10 여건씩의 사업 계약 및 MOU 체결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분위기 전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해(2007년)가 가기 전에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실무차원에서 점검하고 싶었다. 한국 T/F를 주관하는 산자부를 부추겨서 12.17-18 양일 간 자카르타에서 실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에너지, 조림, 방산협력, 인프라, ICT 등 7 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산자부, 산림청, 방산청 국장급이 오고 자카르타 주재 기업인을 포함하여 한국 측 인사 70 여명이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 측도 총국장/국장 들이 참석하여 분야별 회의를 갖고, 성과 및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12.18 조찬에는 Naran 중부 칼리만탄 주지사가 자기 주(州)의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발표를 주지사가 직접 실시하였고, 소그룹 기업 상담회도 가졌다. 이 회의의 결과 2007년도 경제협력 T/F 사업 중 정

부 간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간 부문에서는 인프라, 방산, 산림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발전소 건설, 화학분야 사업, 광산개발 등) 사업들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사업이자 많은 이권이 개입한 만큼 애초부터 빠른 진전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논의를 계속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대사관은 상기 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전략 사업을 아래와 같이 부처별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우리 정부에 건의하였다.

- (1) 경협 T/F 전략적 사업 선정(산자부)
- (2) 인니 가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산자부, 가스 공사)
 - 특히, 인도네시아 측이 제의한 LNG 터미널 사업, 가스 공동 개발 사업 관련 joint study agreement 체결에 대해 우리 측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
- (3) 방산 기술 이전과 절충 교역(대응 구매)에 대한 적극적 검토(국방부, 방사청, 조달청)
- (4) POSCO 조립투자 잠정 예정지 선정(산림청)
- (5) 과기공동위 개최(과기부)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국장급 공동위 설치(산자부)
- (6)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연계한 중부 칼리만탄 주의 package 개발을 위한 부문별 현지 실태 조사 실시
- (7) 한. 인니 인프라 분과 정기 협의회 추진(건교부)

그 다음해 2008.5 귀국하였기 때문에 그 후 사업별 진전 사항을 알 수 없다. 정부 차원의 T/F와 일부 분과위원회가 변형되거나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양국 사이 정부와 민간 혼합 형태의 정례적 논의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도네시아 같이 자원 개발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산업화를 추구하는 나라와의 경제협력은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민간 기업의 공무원 접근이 어려운 나라에서 관. 민 정례적 모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의 주도가 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비즈니스가 기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례적 논의를 통하여 대사는 항상 몇 개의 주문서(대정부 건의)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방문 등 큰 행사에 있을 때 이외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6. 한국, Jakarta Post 연말 특집에 선정

현지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인도네시아와 한해 동안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를 선정하여 특집을 내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인터뷰를 신청하여 왔다. 한국과 중국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실제 2007.12.28 특집에 한국과 중국 2 나라가 실렸으며, 같은 페이지에 한국은 상단에 크게 실렸다. 반면, 중국은 하단에 한국 특집의 반 정도 크기로 실어서 대조를 보였다. 나와 인터뷰하던 JP 부장에 의하면, 중국의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자국 이익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국의 투자는 광범위하고, 기술 협력, 조립 협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한국의 투자를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었다.

중국은 자원개발, 발전소 건설 등의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소규모 발전소를 다수 건설하려는 계획에 중국 회사들이 덤핑 수준으로 참가하여 입찰을 싹쓸이 하였다. 그러나 입찰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일정대로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반면, 외환위기를 맞아 다른 외국 기업들은 떠났지만(일본 기업을 의미), 한국 기업은 남아 자기들과 아픔을 같이 하였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일본이나 중국 기업에 비하여 한국 이미지가 좋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현지 사람들은 크게 고무된 것이다. 외교단들은 현지어를 모르기 때문에 JP에 많이 의존한다. JP 기사덕택에 나는 외교단 사이에서 전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별첨: 2007.12.28자 JP 기사)

* 제7화에서 주요 경제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이야기 한다.

2017년 신년인사식 개최



2017년 1월4일, 주인도네시아 조태영 대사는 대사관 직원, 한인 단체 주요 인사 및 각계 동포 등 170여명을 대사관저로 초청하여 한인사회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신년인사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표창장 시상식으로 이어진 이날 안창섭 페트라삭티 대표이사가 국민포장과 인니하원의장 특별보좌관을 역임하는 안선근 교수가 외교부장관표창상을 받았다. 이어 각 기관과 개인에게 대사표창이 수여되었다.
(대사표창: 민주평통 우용택 외 28명)

조태영 대사는 “붉은 닭의 해에서 붉다는 것은 총명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며 “복잡한 한국 현실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과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고 인니 현 정부의 정책에 맞게 인도네시아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한국인들의 위상을 지혜롭게 높여나가자” 고 당부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동포 안전망 구축, 동포 구조 사업의 활성화,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집” 을 약속하며 “한인동포끼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걸맞은 위상과 인도네시아에서 기대하는 품격도 갖춰나가자” 고 당부했다.

수원지역 구세군에 속해있는 수원 청소년 브라스밴드의 공연 행사를 마친 뒤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은 대사관에서 준비한 떡국으로 조찬을 하며 화합과 발전하는 동포사회를 만들자는 등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한-인니 문화 예술인의 신년 리셉션

대사관은 (대사 조태영)은 1월 19일, 한-인니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편안한 분위기의 '신년 리셉션'을 개최했다.

대사관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주요 방송과 신문, 온라인 포털뉴스 관계자, 한국을 방문했었던 언론인 등 150여 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를 홍보했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잘 표현한 다큐이 인형과 한지 공예 전시를 시작으로 속속 들어서는 현지 언론인들은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한 한국 전통 국악, 클래식 연주 외 문화원 활동 소개, 한국 홍보 영상물 시청,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디자이너 해리 다르소노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현지인이 부르는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아름다운 선율이 홀 내에 울려 퍼지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그 후 대사관에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불고기, 잡채, 김치, 김밥 등 다양한 우리 음식을 선보이며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조태영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적인 양국 관계, K-푸드, 영화, 패션, 콘텐츠, 애니메이션, K-pop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한국문화 행사를 소개하며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당부했다.



2017년 제 1회 ‘적도문학상’ 제정 기념식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와 한인포스트는 공동주관으로 2017년 제1회 적도문학상을 개최한다. 지난 1월 19일 재인도네시아 한인 문예총회관에서 ‘적도문학상’ 제정 축하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영연 한인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 및 임원들과 한인포스트 정선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해외에서 한국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하고자 뜻을 모았으며 공모대상은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인과 만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학생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특별대상으로 응모에 포함된다. 제1회 적도문학상 주제로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및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장르는 시, 수필, 소설, 희곡부문이다. 한국문인협회 본부에서 적극 후원하는 이번 ‘적도문학상’ 공모전의 자세한 안내는 2017년 2월 10일부터 한인포스트 밴드 및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동남아 한인언론에 확정 게재될 예정이다.

★ 바쁘고 지치는 우리의 삶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를 읽게 되면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각자의 현실세계로 진입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한줄기 글을 만나면 인생의 지침이 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문학은 우리 삶을 승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나는 내면의 예술입니다.★



★자료제공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사진 : 조현영 자유기고가

정세균 국회의장

“새 대한민국 거듭나는 출발점 만들 수 있다”

인니 동포간담회 참석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공장 방문한 정세균 의장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촛불시위 등과 관련,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대한민국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정 의장은 이날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연 동포 및 기업인 대표 오찬간담회에 인사말을 통해 “광화문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초청 간담회 당시를 떠올리며 “탄핵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며 “너무 서글프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고 회고했다.

이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정말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 “그렇지만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할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등 향후 정국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전망하는 것 같다” 면서 “어떤 것이든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더 깊고 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이라며 “동포 기업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경제협력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협력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달라” 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앞서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생산 현장을 둘러본 다음 기념식수를 했다.

정 의장은 이날로써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저녁 늦게 출국, 호주를 거친 다음 아·태의 회포럼(APPF) 총회가 열리는 피지를 방문한다.

ljungberg@yna.co.kr

“자카르타 한식당의 경쟁자는 한식당이 아니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2017 자카르타 한식당 이야기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 퍼시픽 플레이스에 가면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음식, 중국음식, 태국음식, 인도음식, 일본음식, 이탈리아음식까지... 또 고급 레스토랑부터 패스트푸드와 디저트 전문점까지... 맛과 가격대가 다양하다. 쇼핑몰 밖으로 나오면 더 많은 음식점들이 있다.

20여년 전 자카르타 한인들은 “이스타나코리아를 갈까? 코리아타워를 갈까?” 라고 물었지만, 지금은 “스테이크를 먹을까? 샤브샤브를 먹을까?”

업 있었다. 반면 쇼핑몰은 여러 종류의 식당이 지정된 공간에 밀집돼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세 번째 변화는 임대료와 인건비의 급등이다. 자카르타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다. 또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이지만 그 만큼 관리비가 높다.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임금도 부담스런 수준이 됐다. 결국 업주들은 종업원의 수를 크게 줄였고, 태블릿PC를 통해 주문을 받는 업소도 늘고 있다.

네 번째 변화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증가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비용 상승에 대응해 수익을



라고 먼저 묻는다. 결정이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최근에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한다. 과거에 팬찮았어도 최근 평이 나쁘면 과감하게 다른 식당을 찾는다.

그렇다면 자카르타 외식산업은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또 한식당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외식산업의 소비층이 넓어지고 식당의 수와 종류가 크게 증가했다.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경쟁하고 있고 가격대도 차별화됐다. 자카르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6~7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먹거리가 많아졌다” 고 말했다.

두 번째 변화는 쇼핑몰 증가다. 상가 전용건물이나 개별건물에 있을 때는 식당이나 상점이 띄엄띄

내고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효율이 높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 다섯 번째 변화는 세계 각국이 저성장과 청년실업 극복 방안으로 자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국가간 임금 격차가 줄면서 외국에 셰프로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했다. 자카르타에서도 이탈리아인, 중국인, 일본인 셰프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발달이다. 광고가 예전에는 종이신문이나 잡지 등 통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외출하지 않고 고 푸드(Go food)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한식당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지난 수년 간 한식당의 가장 큰 변화는 인도네시아인의 한식당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인은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국인에 비해 큰 자본을 가지고 있고 법적 지위가 유리하며 자국 소비자의 입맛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성공한 프랜차이즈업체들과 접촉해 유명한 한식당 브랜드를 수입한다.

이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인 조리사를 빼고 현지인만으로 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증가했지만 맛과 위생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한인 한식당 운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한편 자카르타 외식산업 전체로 보면 한식당은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개인소득 증가·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외식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맛에 대한 욕구도 크다. 자국민의 취향을 잘 아는 인도네시아인이 한식당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한식당의 현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식당이 인도네시아 식당을 비롯해서 전세계 식당들과 경쟁해서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한식당 관계자는 “요즘 식당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는 20~30대 여성이다. 그들이 먼저 먹어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권한다”

고 말했다. 전통한식

또 인도네시아인들이 와서 한식을 먹는 한식당과 한국인들이 술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한식당으로 분화되고 있다. 현지인이 많이 찾는 한식당은 다시 세련된 인테리어와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보장하는 고급 한식당과 아예 양과 질 그리고 가격을 인도네시아 중산층 수준에 맞춘 한식당으로 나뉜다.

자카르타 한인공동체만 보면 한식당은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포화상태다. 또 주류판매허가 취득과 주거지역에 위치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으로서 세무와 이민국 문제 등도 쉽지 않은데다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상승했다.

만 고집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인에게 비빔밥이 스키보다, 해물과전이 피자보다, 부대찌개가 톰양쿵보다 맛있어야 한다.

한식당이라는 상품을 놓고 볼 때, 한식당 운영자도 소비자도 더 이상 한국인끼리의 경쟁이 아니다. 한식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음식과 경쟁한다. 한식당 운영자는 한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과 경쟁한다. 실내는 쇼펍물만큼 쾌적하고 멋스러워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연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집중! 이 사람

한글교육과 고아원지원 등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인우회

명예회장 이종윤



한인뉴스 편집팀은 1월13일 땅그랑에서 10주년을 맞이 한 인우회의 이종윤명예회장과 신동수회장을 취재하였다.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에...”

1. 인우회 소개 및 역사

가. 인우회 뜻 :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한인의 우정의 모임

나. 인우회 역사

- 2007년 6월 부터 준비하여 2007년 12월 28일 창립 총회를 하여 7명이 만장 일치로 초대 회장에 이종윤 현 명예 회장님을 추대하여 창립
- 2008년 3월 모임시 인우회가 인니 봉사 하는 자생 단체로서 활동 하기로 결의
- 현재 인우회 회원 14명

2. 인우회 10년 간의 주요 활동 내역

- 밀알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글응변대회 (2008년)
- 현지고아원 방문, 사랑의전화 999 결식가정돕기 (2008년~현재)
- 다문화가정 아동한글교육 및 한국문화 알리기(2009)
- Merapi 화산 구호성금(2010)
- 다문화가정 무지개공부방 지원(2011)
- 땅그랑 상업고등학교 한국어 교육비 및 교재 전액지원 (2012~현재)
- 땅그랑 상업고등학교 한글수업생 장학금 지원 (2012~현재)
- 땅그랑한인회 Sunatan 행사 창조 (2014)



- SMK N 1 학생들과의 인우회 8주년 송년의밤 (2014)
- Yesika 학생 안구수술비용 지원 (2015)
- UMN 코리아센터 오픈식 불우이웃돕기 (2015)
- UNAS대학교 장학생 등록금 지원 (2015~현재)
- SMK N 1 학생들과의 인우회 9주년 송년의밤 (2015)
- SMK N 1 인도네시아전국외국어말하기대회 참석지원 (2016)
- SMK N 1 학생들과의 인우회 10주년 송년의밤 (2016)

3. 인상 깊었던 일들

- 가. 한글 교육을 지원하는 땅거랑 SMK NEGERI 1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1,2등)
- 나.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중 4명 인도네시아 UNAS 대학 한국어과 진학
- 진학 학생 KEBHANA 장학금 수령
- 다. 2014년 부터 한글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실시하는 송년회 밤
- 라. 한글 교육을 받은 학생중 실명을 한 학생 안구 교환 술 지원 (병원 및 기타 비용 일체)
- 마. 한글 교육 지원하는 땅거랑 SMK NERERI 1 학생들 흥부전 연극 공연

4. 이종운 명예 회장님의 인생 철학 과 한인 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行同 餘他 不可 越群 의 말과 같이 남과 같이 해서는 남이상이 될수 없다는 인생 모토를 가지고 남이 한 발짝 움질일때 2발짝을 움질일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마음, 몸 과 행동이 삼위 일치가 되어야만 이루고져 하는 목표를 이룰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속에서도 , 한인 사회가 서로 격려하고 소통 한다면 ,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 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 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인도네시아 커뮤니티와 화합하고 기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며 , 남의 잘못이 자기 허물 인양 생각 하면서 , 서로 협조하고 힘을 모아 그 뜻을 이룩하는 한인 동포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2대 신동수 회장과 함께

5. 앞으로 의 계획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봉사 자생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조국 문화와 한글을인니에 알리고, 현재 장학금을 지원하는 땅그랑 SMK NEGERI 1 에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정식 채택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 문화 가정 과 고아원 지원등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곳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우회 창립 10주년 행사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실업고 학생과 교사가
어울어진 상큼한 송년행사

지난 해 12월 27일 인도네시아 자생단체인 인우회(회장:신동수)에서 창립 10주년 송년행사가 땅그랑 소재 모던랜드에서 열렸다.

매년 인도네시아 실업고 SMK NEGERI 1 교장 선생님 이하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이지만 특히 올해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주인도네시아 박상민 공사를 비롯해 땅그랑 한인회 오세명 회장, 인도네시아 한인회 강희중 수석부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인우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해 주었으며 10년간 꾸준히 한글 보급을 위해 애써준 인우회 회원들을 위한 찬사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인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집을 발행했다.

그 동안의 활동상을 기록 보관해 인우회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해 잠시 여가를 활용한 봉사를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내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지나가는 봉사로 만들지 않기위해 활동기록을 책으로 만든 단체로는 처음이다.

인우회 신동수 회장은 바쁜 일상속에서 틈틈이 키워나간 작은 봉사활동들이 점점 영글어 현지 고등학교의 한글교육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땅그랑 한인회 오세명 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인우회의 활동은 한국 교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

고 말하면서 다가 올 10년을 기대하며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인우회는 지난 2007년 12월 창립되어 이종운(SMI 사장)초대회장을 추대해 8년간 이끌어 왔으며 지난해 신동수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10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보면 한글지원을 비롯해 결식가정돕기 쌀 지원, 현지 고아원 방문, 다문화 가정 지원, 현지 학생의 눈수술 지원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한글지원 실업고 졸업생중 UNAS대 한글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을 위한 대학 학비지원까지 하고 있다.

현재 6명의 한글학과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학과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더욱더 늘 어날 것으로 본다.

(제공: Media Korea)



To do is to be - Friedrich Wilhelm Nietzsche



@Sukabumi, Jawa barat

©2012, Cho Hyun Young (ajuma86@hotmail.com)



재인니 대한태권도협회 해외지부 조규철 명예회장

국기원명예5단 수여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해외지부)는 조규철 명예회장 (세계연맹 자문위원)의 국기원명예5단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규철 명예회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자문위원으로 인도네시아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과별로 인한 인도네시아 태권도에 중재역할을 해왔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열 번째 해외지부로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가 인도네시아 태권도 역사 50년만에 창립될 수 있게 공헌을 해왔으며, 특히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명예 회장직을 수행하며 리더로서 인도네시아는 물론 세계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단 왼쪽부터 광영민 감독(국기원파견), 강병찬 상임부회장, 조규철 명예회장(세계연맹 자문위원), 이지현 부회장, 방진학 회장

조규철 명예회장은 “세계태권도의 중심 국기원에서 인정해준 명예5단이 된 만큼 태권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양국 우호관계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제공 :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이명호총영사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

<재외동포신문>이 해마다 현장 최일선에서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향상에 애써 온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는 2017 제 13회 '발로 뛰는 영사상'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명호 공사 겸 총영사가 선정되었다.

이총영사는 평소 교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민의 안전과 보호에 열의를 갖고 앞장 서 총영사부문 수상자가 되었다.

한인회관 (코리아센터 옆) 2층으로 바둑두러 오세요!



PHOTO NEWS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바둑협회 이원제 회장이 바둑판과 바둑 테이블을 한인회에 기증하여 바둑 애호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인회 여성분과에서 다녀왔습니다!

한인회 여성분과(박미례 수석부회장) 임원들이 '루마인다' 유치원(원장: 김영휘) 방문

2017년 1월 24일, 박미례수석부회장과 임원3명(정현옥, 오영란, 김선영)은 루마인다 김영휘원장의 '2016 자랑스런 한인상' 수상을 계기로 '루마인다' 유치원(2014년 이래로 총 2회 졸업생 배출, 현재 51명)을 방문하여 운영과 후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수석은 “김영휘 원장님의 지도 아래 한국인 특유의 성실과 단정함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아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고 전했다.

앞으로 한인회 여성분과에서는 루마인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원자 모집과 유치원 행사(성탄과 르바란)에 물품 지원 그리고 고등학생 및 중학생 초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 38회 초등 졸업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백우정)는 지난 1월 25일 JKKS 나래홀에서 ‘제 38회 초등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명호 영사, 강희중 한인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꽃다발을 사들고 온 많은 학부모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졸업생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졸업장 수여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학교장 인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인도네시아 대사상 박새미, 학교장상 송두섭, 한인회장상 배은준, 재단이사장상 박현민, 민주평통회장상 나하은, 모범상 문수진외 8명 등에 대한 수상과 졸업생 전원에게 꿈나무상을 수여 했으며, 졸업장이 수여되는 시간 내내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는 졸업하는 6학년 학생 44명의 장래희망과 부모님께 보내는 글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어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송사를 낭독 후, 졸업생대표 송두섭 학생이 답사를 전할 때는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숙연한 모습으로 이를 청취했다.

이명호 총영사는 “독립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졸업을 축하했고, 강희중 한인회부회장은 “더 큰 세상으로 떠나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당부했다.

백우정 교장은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꿈임없이 노력하고 관찰하며 질문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졸업생들과 후배들은 입을 모아 졸업식 노래와 교가를 불렀다.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JKKS 제38회 졸업장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제18회 고교과정 졸업식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교장 백우정)는 1월 24일, JIKS 나래홀에서 '제18회 고교과정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조태영 대사, 양영연 한인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학부모 등 수백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장 수여는 교장과 임원진이 졸업생 전원에게 일일이 수여했고,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에게 뜨거운 포옹을 하며 사제지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을 나눴다.

미래사회 대비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직스는 올해 7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대사상 김용혁, 한인회장상 조경목, 학교장상 김혜인, 재단이사장상 한하림, 민주평통상 현정원, 동창회장상 이슬 학생에게 각각 수상했다.

김경목 졸업생은 “눈물이 안날 줄 알았는데 한명 한명과 지낸 지난 일 년을 생각하니 울컥한 마음이 든다.”며 아쉬워했다.

조태영 대사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인생은 여행이다. 새로운 세상에 두려워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힘차게 출발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우정 교장은 “모든 희망은 여러분의 자신 안에 있다. 경쟁하기보다 스스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직스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마라.”고 당부했다.

교가 제창 후에 졸업생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담임과의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눴다. 졸업생들을 위한 포토존이 만들어져 졸업식에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졸업식의 의미를 더했다.

*진학 상황 (합격 기준, 중복합격 포함)

(2017년 1월 24일 현재)

대학	서울	연세	고려	성균관	서강	한양	이화	중앙	경희	외대	인하	건국	동국	숙대	의예과	기타	계
합격자	2	19	10	32	9	23	16	28	5	7	2	5	1	2	2	51	214

새롭게 변신한 JIS



(학생기자 JIS 김재호)



자카르타 국제학교 (Jakarta Intercultural School)에서 2015년부터 공사 중이었던 새로운 빌딩이 2017년 겨울방학 개학 이후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 빌딩을 세운 취지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 모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현대적인 디자인과 개성 넘치는 방들을 보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나타내곤 한다.

우선 1층에는 새로운 고등학교 사무실이 생겼다. 기존 사무실과 달리 새로운 빌딩에 있는 사무실의 벽면이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활기차고 밝아진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사무실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선생님들을 볼 수 있어서 용무가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무실은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1층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은 학생 휴게실인데, 휴게실의 규모가 교사 휴게실에 비해 다소 협소한 공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나 Honor pass 시간 때 소파에 앉아서 쉬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인정받은 듯하다.

다음, 2층부터 4층까지 있는 공간들은 전부 Social study (경제, 경영, TOK, 등등) 과목을 위한 교실들이다. 이제부터 빌딩에 있는 교실들을 F module이라고 부르는데, 기존 지스의 교실들과

달라진 점이라면 교실 번호를 호텔 방이나 한국 아파트처럼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을 F- 201로 부르는 것이다.

보통 social study 반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 때 지내는 곳과 멀고 기존에 있던 방들은 번호로 지정돼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교실을 찾을 때 헤매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교실 간 간격이 좁아지고 찾기 쉽게 돼 있어서 학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3층도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습실이 생겨서이다. 자습실에는 토의하기 좋은 테이블이 놓여 있으며, 밝은 인테리어로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내 벌써 많은 학생들이 탐내는 공간이다. 4층은 11학년과 12학년을 위한 IB 경제 또는 경영 수업을 하는 교실들이 주로 있다. 3층과 4층에서는 아직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창의적인 용도, 또는 정원으로 쓰일 예정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스의 새로운 빌딩을 1층부터 4층까지 샅샅이 알아 보았는데, 항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좀더 편안하고 밝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늘, 양질의 교육과 환경으로 최고의 능력과 인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 내고자 노력하는 학교 측의 배려에 감사한다.

자랑스러운 한인 기업, 젊은 대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을 심다

지난 1월 2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한국 한동대(총장 장순흥) 학생 15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인으로서 진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탐방프로그램명은 ‘자카르타 ICT창업 사례조사 및 산학협력 과제 발굴 프로그램(이하 기업탐방)’으로 한동대와 글로벌 산학협력 및 취/창업 프로그램 파트너십 약정을 한 인도네시아 우리컨설팅에서 일정을 주관하였다.

본 기업탐방을 지원해준 한인기업은 그린월드를 꿈꾸는 ‘Korindo그룹(회장 승은호)’, 동남아 최초 일관제철소인 ‘PT. Krakatau POSCO(사장 민경준)’, 유통 도매점, 소매점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롯데마트(법인장 윤주경)’, 종합컨설팅사인 ‘우리컨설팅(대표 김민규)’ 두란노 인도네시아 재단 ‘FDI(대표 이용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Chrombit(대표 이충실)’ 사로 연초 바쁜업무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성장과정과 경영철학 등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아낌없는 조언을 들려주었다.

한동대 학생들은 ‘코린도는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우림을 보존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적인 기업을 비전으로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강연을 해주신 부회장님과 전무님께서 어린 우리들을 존중해주시며 질

문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모습에서 참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포스코는 현지와 기업 문화간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두 문화권간의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현지와 잘 어울려 성공적으로 인니에 진출한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나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민경준 사장님을 한 번은 꼭 만나보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의 소매 시장과 도매시장의 차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의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현지시장에 안착한 부분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고 인니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인 기업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또한 이번 탐방을 이끌어주신 분의 친절함과 겸손함을 보며 이부분이 더불어 롯데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 말했다.

본 기업탐방은 낯선 땅, 낯선 문화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한인기업가들이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기업탐방을 계기로 한국 청년들이 더욱 넓은 곳을 바라보며 역량을 키워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공: 우리 컨설팅)





헤리티지는 26일, 해외 인턴쉽 활동 홍보를 겸한 언론사 초대행사를 가졌다.

동아대학교 인문 역량강화 사업단(CORE)과 헤리티지 코리아섹션 MOU 체결

1월 13일,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회장 이수진, 이하 헤리티지)은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한국의 동아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 단장 박은경교수)과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박물관 연수 분야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CORE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대륙 별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문역량 강화사업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등 19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학생들을 파견하였으며, 한 달 동안 한-인니 교육문화재단(IKC&S)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문화와 역

사 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 목표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교육기회를 파악하여 상호 협력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양측은 서명식을 통해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의 내용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헤리티지와 동아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은 자원 외교 등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제공: 헤리티지)



지난 1월 23일 비즈클럽과 헤리티지 공동 주최한 강좌 :

“경제 동향 ‘환을 주식 알기, 인도네시아 한인들만 가능한 재테크’”

유은우, 심태용 (미래에셋 대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강사의 강연으로 참석한 동포들의 투자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어? 이런 곳도 있었네!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글: 이승진 (한인회 간사)

이번에 소개할 여행지는 롬복의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이다. 롬복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유명한 3군데의 작은 섬, Gili Trawangan, Gili Air, 그리고 Gili Meno는 현지인들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섬이다. 인도네시아내에서 롬복을 언급하면 같이 따라오는 여행지는 ‘발리’가 있다. 여행지로서 개인적인 시각은 롬복은 한적하고 ‘휴양’하기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발리는 복잡하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을 한다.

롬복의 길리 트라왕안, 인도네시아로 줄여서 ‘Gili T’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염되지 않은 에메랄드 빛의 드넓은 바다는 도시생활과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푸르름 자체는 위안을 준다. 길리트라왕안의 해변은 서쪽과 동쪽해변이 각각 다른 면모를 가졌다. 동쪽해변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도심이다. 현지 거주자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에 활발한 도시의 느낌을 더 많이 느

낄 수 있고 반대로 서쪽해변은 한적하고 고요한 해변의 모습을 띤다.

길리 트라왕안은 청정지역으로도 유명한데 해변 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바닷속의 산호초가 오염이 안된 채 아직 자연그대로 산호를 볼 수 있다는 것과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인 니모, 광대물고기와 같은 형형색색의 수중생물도 많이 마주칠 수 있기에 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дай버들이 트라왕안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길리 트라왕안지역은 ‘Terbebas dari kemacetan dan polusi kendaraan’ 즉 도시의 갑갑함과 대기 오염으로부터 해방된 곳이라고 표현한다. 아니 표현하고 싶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딱딱한 도로의 자동차와 여기가 주차장이로구나 까지 생각하게되는 오토바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섬내에서 이동하려면 자전거 또는 롬복과 길리 트라왕안의 교통수단으로, 말이 이끄는 자전거형태의, 쨌도모(Cidomo)를 타고 이동한다.

길리 트라왕안의 숙소는 코티지(cottage) 형태부터, 빌라, 리조트, 별4개의 높은 등급의 호텔까지 다양한 있기에 취향에 맞는 숙소 선택이 가능하다. 길리 트라왕안까지는 비행기로 롬복까지 이동 후, 배를 이용하여 트라왕안섬까지 들어간다. 비행기티켓 가격은 대략 왕복 70만 루피아선부터 시작한다. (자카르타출발)

긴 르바란명절이 아니더라도 잠시 짬을 내어 일상이 바쁜 우리들에게 길리트라왕안 섬으로의 여행을 살며시 추천해본다.



내게 특별함을 가져다 줄 유망한 이색자격증!

자격증도 이제 대중화가 되어 기본적으로 없으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사실상 자격증으로 차별화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후와 이력서에서의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줄 이색자격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 직업은 노후대비에 대한 고민도 늘어가는 요즘 적합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교통에 관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

다음은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자격증입니다.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자격증이자 직업명이에요

아동부터 노인까지 교육의 폭이 넓다는 점과 국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색자격증이 곧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창출하는 유망자격증이라는 동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리수납전문가**입니다.

정리수납전문가라고 해서 “에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직종은 실제로 선진국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입니다.

실제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습관, 생활 패턴,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공간과 용도별로 분류하는 엄연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가에 있어 기반이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서도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하고 몰래 들어오는 범죄도 상당히 많은데 무역에서 수출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와 컨설팅을 하는 직업이자 자격증인 **원산지 관리사**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원산지 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도 생겨나면서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컨벤션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곳, 만남의 장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은 다양한 인력의 정보와 직무가 동반되는 컨벤션에서의 기획 자질을 갖추게 해주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으로, 혹은 같은 곳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아 그 자리는 점점 좁혀가고 있어 취업도 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함과 차별화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세상이 열린다면 그 처럼 이상적인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맨오른쪽 포스터에 있는 여성의 자세는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죠?

집단빙의 (끄수루빤 마쌀 / Kesurupan Massal)

인도네시아의 흑마술은 현지교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또는 가정부, 운전수, 직원들 같은 현지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얘기 역시 문화가 다르다 보니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금시초문의 시커먼 동남아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기 힘든 것처럼 문화적, 정서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니 뽀뽀나 뽀뽀가 왜 나타나 뭘 하려는 귀신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무서워하기엔 좀 뻔뻔하죠. 때로는 저게 정말 귀신일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끄수루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빙의현상을 인도네시아어로는 ‘끄수루빤’ (Kesurupan) 또는 ‘끄라수깐’ (Kerasukan)이라 해요.

귀신이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지배하거나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 말입니다. 대체로 모든 정령들과 귀신들 종류대로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인도네시아이니 끄수루빤에 대한 영화들도 당연히 많습디다. 물론 엑소시스트 같은 명작과는 비할 바 아니지만요.

그런 것을 절대 믿지 않는 분들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빙의현상, 특히 집단빙의현상인 끄수루빤마쌀(Kesurupan Massal)은 한국기업들의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이 시작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교민들의 일상과 맞는 사건이 되어 다가오곤 했습니다. 한국 공장들에서 벌어진 집단빙의 현상에 대한 현지 신문기사를 뽑아 보았습니다.

Belasan buruh pabrik di Purbalingga kesurupan, minta mawar putih

뿌르발링가 공장직원 수십명 집단빙의. 흰장미 요구해. 2014. 10. 8.

Merdeka.com 중부자바 뿌르발링가의 한 가발공장에서 직원 수십명이 집단빙의 되었다. 이 사건으로 간당감빵면에 소개한 이 공장은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15명이 집단빙의된 인도코레스 공장의

이 사건은 니팅부서의 한 여직원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르더니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사의 경비원인 마스크꾼은 다른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최소한 10명 이상의 다른 직원들도 같이 빙의되고 말았어요” 라고 그는 지난 수요일 말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침 9시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회사측은 곧바로 종교지도자와 울라마를 모셔오면서 빙의현상을 일으켰던 몇몇 직원들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으나 다른 몇몇이 또 다시 빙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빙의된 직원들 중 일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던 울라마에게 흰 장미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게도 했고 또 다른 한 여직원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집단빙의현상이 극복된 것은 오전 11시반이 지난 후였고 회사는 빙의현상을 겪은 직원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인도코레스의 김이사는 직원들 사이에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처음 보아 크게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했고 이 사건에 대한 커멘트는 진정된 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측은 이날 직원들을 모두 조기 귀가시켰다.

(출처 <http://www.merdeka.com/peristiwa/belasan-buruh-pabrik-di-purbalingga-kesurupan-minta-mawar-putih.html>)

인도네시아의 귀신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귀신사건 때문이었다.

이 애기의 시작은 공장 작업장에서 일하던 미싱공 한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실신하면서부터다. 당시 주변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초졸 학력밖에 안되는 이 미싱공이 실신한 상태에서 화란어를 중얼거리더라는 것이다. 그런 소문에 종업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공장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종업원들이 수십명씩 동시에 귀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는 사태가 잇따랐는데 이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화란인들과 중국인들의 공동묘지터 위에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처음 입주할 때 적절한 이슬람식 축복 의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종업원들이 본 귀신들은 대개 공장 벽면에 달린 회전식 선풍기 위에 붙어 납작하게 쭈구리고 앉아 새빨간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을 노려보았다고 하며 때로는 직원들 머리 위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흐늘거리며 지나갔다고도 전한다. 그 와중에 강제귀가시켰던 한 창고직원은 흐리멍텅한 눈에 침을 마구 흘리며 창고 한 구석이 자기 집이라면서 자꾸 기어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공장은 공포 속에 침몰해 가동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목사님을 불러와 기도회도 갖고 울라마(Ulama)를 청빙해 이슬람식 의식을 갖기도 하고 굵기야 두꾼을 불러 검은 염소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 여자화장실 타일바닥 밑에 묻고 피를 주변에 뿌리는 축신술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귀신사건은 어느 정도 잠잠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이 가스로 완전 정상화된 것은 귀신을 봤다는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전원 퇴직시킨 후였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장가동 같은 경제활동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사무실의 어두컴컴한 복도와 그 뒤의 새카만 사무실 공간이 그 당시처럼 으시시했던 적이 없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세면대 앞에 붙어있는 거울에 존재할 리 없는 무언가가 비칠 듯 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화장실의 조그만 창문 뒤로 그 높이엔 절대 있을 수 없는 산발한 사람 머리 하나가 불쑥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출처 - http://blog.daum.net/dons_indonesia/20)

이상은 내가 근무했던 북부 자카르타 짜쿱(Cakung) 보세공단 소재 봉제공장에서 1994년도에 발생했던 단체빙의사건에 대해 그로부터 몇 년 후 써두었던 글의 일부입니다.

당시의 이 사건도 앞서 세 개의 신문기사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단지 이 사건이 며칠간의 조기퇴근이나 조업중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빙의사례자들 전원의 퇴출로 이어졌으므로 아무도 해피엔딩을 맞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후 이 공장에서는 두 번 다시 단체빙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공장들과 작업장에서 이런 집단빙의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우려하는 사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건을 은폐하고 직원들 입을 단속하므로 우리들 귀엔 이런 사건들이 대체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소개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셈입니다. 집단빙의는 비단 인력집약적 공장에서만 아니라 콩나물시루 같은 각급 학교들과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특정 종교행사 같은 곳에서도 곧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에서 대충 눈치챈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집단빙의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빙의, 귀신에 홀리거나 귀신에 썩이는 현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영화나 실례에서 보듯 빙의는 개인이 생명의 기로에 설 때까지 반복되고 집요하게 지속되며 때로는 악화되어 심지어 파국에 이르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집단빙의현상은 다분히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령에게 빙의되면 영화 엑소시스트의 어린 리건(Regan)처럼 누구나 다 360도 목이 회전하거나 몸을 브릿지상태로 뒤집어 거미처럼 납다 달리거나 악취 풍기는 녹색슬라임을 물대포 쏘듯 뿜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빙의된 상태에서 내뱉는 말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귀에 쑥쑥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신한 사람이 화란어로 말했다거나 중국어를 구사했다는 부분은 좀처럼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 자체가 중국어나 화란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꼬수루뻘 되었다는 현지인들은 대개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보통이거든요.

개콘코너 중 ‘민상토론’을 보세요. 유민상이나 김대성이 무슨 말을 하든 김영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듣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믿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밀어 붙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암시를 주고 나면 그렇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역시 개콘의 옛날 음악개그코너에서 무대 위의 박성호가 팝송 가사가 나오기 전 한국어로 암시를 주면 ‘All by Myself’도 ‘오빠만세’로 들리는 것처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각양각색의 외국어와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사도행전의 기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귀신들의 চাল진 외국어 구사 능력과 국제화 수준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 대략 민상토론식의 맥락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니 빙의된 현지 종업원이 한국말을



중얼거렸다는 대목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켜 보려는 기자의 패기가 일견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빙의된 현지인이 분명한 한국어를 구사했다는 다른 에피소드를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2008년의 일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만난 후배로부터 그의 짜까랑 공장에서 벌어진 빙의사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업 중 졸도해 쓰러진 종업원이 잠꼬대 속에서 누구랑 대판 싸우기라도 하듯 높은 톤의 중얼거림엔 영어가 섞여 있었고 곧이어 유창한 만다린 중국어가 튀어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20대 초반 빈민층 여종업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언어능력 이었죠.

이 후배가 겪은 사건은 내가 짜까랑 KBN 공단에서 겪었던 사건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어요. 첫 실신자를 곧바로 귀가시켰고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다른 종업원들을 재빨리 정리하면서 확산을 막았으니까요. 그러나 처음 실신했던 그 여직원이 보

인 행동은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제귀가 직전, 제 한 몸 가누지 못해 휘청거리면서도 경비원들을 다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법인장실에 들어선 그녀가 뭔가 씩인 게 분명한 산란한 눈초리로 내 후배를 노려보며 하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야, 박00, 내가 너랑 할 말 있는데…”

분명한 한국말로 말이죠. …허걱!

난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dons_indonesia/3)

대개의 경우 집단빙의 현상이란 어쩌면 귀신의 조화라기보다 자기 암시를 통해 필연적으로 증폭되어 버린 공포심,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군중심리까지 겹쳐진 뭔가 복잡미묘한, 그러나 대체로 과학적으로 설명가능한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짜까랑 후배의 경우와 같이 귀신이라고 믿어질 만한 어떤 존재가 자기 코앞까지 정면으로 달려든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얘기가 뺨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빙의’란 것은 논란이 많은 화두임이 분명합니다.

한 소녀가 실제로 악마에게 빙의되어 기괴하고 처참하게 변해가는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 ‘엑소시스트’가 전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1973년의 일이었는데 1978년엔 독일에서 벌어진 카톨릭 퇴마의식이 세간에 보도되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3년간 행해진 이 퇴마의식은 당시 서구사회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에밀리 로즈의 엑소시즘’ (The Exorcism of Emily Rose)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영화화되어 당시 사건을 대형 스크린에 다시 구현해 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름다웠던 아델리즈 미셀의 빙의현상과 퇴마의식의 디테일들을 그 후 벌어진 법정공방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스마트해지는 인도네시아 시장

-한국의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물류가 만나다-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요즘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한국업체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원 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약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ICT 분야에서도 다양한 한국업체의 진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 게임시장을 개척했던 크레온에서부터, 최근에는 SK planet이 운영하는 일레브니아(한국 11번가)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모바일 광고 매체로 주목받고 있는 Cash Tree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많은 한국 업체들은 독자적인 진출로 한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시장 내에서 성공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독자분들의 스마트한 생활이 아닌 더 스마트해 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ICT 시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낙후된 인프라와 지역적인 특성, 관료주의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문화와 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실패를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최근 한 업체의 사례가 저의 눈을 사로 잡았습니다. 보통의 업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하는 반면에 이 업체는 '협력'이라는 컨셉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을 하는 로컬업체와 각각의 고유 분야에서 협



업을 이루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멋진 ‘협업’ 을 이루어 낸 한국의 IT업체 ‘코드브릭(Codebrick)’ 과 인도네시아 라스트마일 물류스타트업 ‘포터(Porter)’ 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포터’ 는 많은 분들이 잘 아는 Bakmi GM에서 만든 물류업체입니다. Bakmi GM의 경우 음식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에 대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B2B 배송 스타트업을 만들어 이커머스 물류 시장에 뛰어 들고자 했습니다. ‘포터’ 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 시스템 개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여러 차례 외주 용역을 통해 시스템 개발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로만 이어졌습니다. ‘기술역량 부족’ 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의 ICT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IT인프라의 구축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새롭게 유입되는 개발 인력 만으로는 고난이도의 개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자 문제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올바른 기획문서를 만들어 내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회사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포터’ 앞에 한국의 ‘코드브릭’ 이라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포터는 코드브릭의 시스템을 통해 기존 그들이 겪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제 포터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자동으로 접수 받을 수 있으며, 라우팅을 통한 자동 배차 역시 가능합니다.

포터의 핵심고객인 이커머스 사업자에게는 특화된 API를 제공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자동으로 배송 주문까지 완료돼 배송단계에 따라 자동으로 푸시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터 배송기사들 역시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그들이 이동할 다음 목적지를 전송 받습니다. 포터 운영팀은 이에 따라 기사의 실시간 위치와 배송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배송 주문은 시간, 목적지, 교통상황, 동선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기사에게 배차지시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는 한국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단순하고 초보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후된 IT환경에 있었던 포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포터’ 의 경우 ‘코드브릭’ 과의 시스템 개발 이전에는 기사당 하루 평균 배송 물품수가 2~3개 물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기사당 8~10개로 늘어나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업체와 나쁜 업체를 선택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파트너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이 생길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파트너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를 수 인정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학습해 나갈 때 비로소 좋은 파트너와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함보다 ‘기다림’ 이 더 좋은 답을 주기도 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글: 우리소다라은행 김용욱상무

□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상황

최근 인도네시아 2016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5.02%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된 상황이나, 조꼬위 정부의 개혁모멘텀 강화, 적극적인 경기부양노력 등이 주효하여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분기별 경제성장률>

분기	14.1Q	14.2Q	14.3Q	14.4Q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성장률(%)	5.14	4.96	4.97	5.04	4.73	4.66	4.74	5.04	4.92	5.18	5.02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해온 기준금리는 연중 $\Delta 2.5\%$ 인하폭을 기록하여 현재 4.75%이나, 향후 추가 인하여력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짐.

* 7.25%('16.1월) \rightarrow 7.00%('16.2월) \rightarrow 6.75%('16.3월) \rightarrow 6.5%('16.7월) \rightarrow 5.25%(역레포, '16.8월) \rightarrow 5.00%('16.9월) \rightarrow 4.75%('16.10월)

달러/루피아환율은 달러당 13,000 ~ 13,100루피아 전후의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국 대선 트럼프 승리에 기인한 향후 경제정책 불안감,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13,300대에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인도네시아는 2017년도에도 현 정부의 경제개혁패키지 전략에 따른 재정건전성 노력과 정부지출 확대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국 경제의 연착륙 조짐과 원자재 가격 반등,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5%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냐? 없느냐?” 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2016년~2018년 전망치>

구분(전년동기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계소비	5.00	5.01	5.05
정부 지출	1.59	5.09	5.13
수출	-3.79	0.09	0.10
수입	-2.96	0.02	0.04
GDP 성장률	5.10	5.10	5.30

다만 미국 대선의 트럼프 승리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건실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내 성장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최근 소비나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큰 폭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조코위 정부가 제시한 7% 성장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5억 인구가 61%가 35세 미만의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력을 가진 매력적인 인구구조 보유, 내수중심의 소비성향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투자 지속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여전히 타 신흥국보다 더 밝을 것이다.

(금리 및 루피아 환율전망)

금년 이미 6차례 인하한 시장금리는 향후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주의무역 강화 등을 고려해볼 때 2017년에는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인상방향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달러/루피아환율 역시 2017년 상반기까지는 달러강세에 따른 루피아 약세의 불안한 모습이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제불안요인 해소와 인도네시아 대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확인되는 시점이 다시 13,000원 이하로의 안정세로 전환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2017년 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중부 술라웨시, 외국인 감시 강화… 불법 외국인 노동자 26명 강제 추방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가 외국인 노동자 감시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부술라웨시주정부는 2016년 이민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특별팀을 결성해 같은 해 1~10월까지 총 26명을 강제 추방했다. 지난 12월에는 한국인을 비롯해 일본인, 중국인 등 불법노동자 64명을 적발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술라웨시주정부는 법무인권부, 투자조정청(BKPM)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들과 외국인 감시 특별팀 ‘팀포라(Timpora)’를 결성했다. 술라웨시주 노동이민국의 압둘 라작 국장은 “팀

포라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 관리가 보다 용이해졌다” 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1,292명으로 이 가운데 1,200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이 광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법무인권부에 따르면 2016년에 적발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7,787명으로, 이 가운데 1,837명이 중국인이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용 단기 비자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갈리만탄 뽀띠아낙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자료사진=안따라



남부자카르타 팟마와띠 대로 6개월간 일부통행 금지…MRT공사



남부 자카르타 RS 팟마와띠 대로(Jl. RS Fatmawati)가 2월부터 6개월 간 일부 통행이 금지된다. MRT 역(Stasiun Haji Nawi) 건설 공사를 위해 대중 교통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통행이 일부 금지된다.

개발 주체사인 주영 MRT 자카르타에 따르면 통행 금지 기간은 2월 4일~8월 11일까지이다. 대상 구간은 압둘 마짓 라야 대로(Jl. Abdul Majid Raya)와 다룰 마아리프 대로(Jl. Darul Ma' Arif) 사이의 약 300미터로 교각 및 기초 공사 등을 위해 공사 범위를 확장한다.

MRT 자카르타는 홈페이지 <<http://www.jakartamrt.co.id/activities/id/news/234/Penutupan-Jalan-Fatmawati-Untuk-Pekerjaan-Pembangunan-Stasiun-Haji-Nawi>>에서 주변 시설의 이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일반 차량용은 우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회로 안내

-남부에서 팹리마 폴림(Jl Panglima Polim)으로 향하는 차량은

- ①안따사리(Jl Antasari)→압둘 마짓(Jl Abdul majid) 또는
- ②메트로 뽀독 인다(Jl Metro Pondok Indah)→하지 나위(Jl Haji Nawi) 이용

-북부에서 팟마와띠 분기점(simpang Fatmawati)으로 향하는 차량은

- ①안따사리(Jl Antasari)→찌쁘떼 라야(Jl Cipete Raya) 이용

콜리어스 "외국인 주재원 주재 형태 변화...단신 부임 증가 추세"

미국계 부동산 서비스 대기업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Colliers International Indonesia)는 최근 국제 자원 가격의 침체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자 규제에 따라 외국인 주재원들의 주재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자카르타 임대 주택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 주재원 수는 증가세로 전년 대비 11% 늘어난 8천 42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주재원 증가 추이

국 명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비
중국	16,328	17,515	21,271	21%
일본	10,838	12,653	12,490	▼1%
한국	8,172	7,590	8,424	11%
인도	4,981	5,900	5,059	▼14%
말레이시아	4,022	4,306	4,138	▼4%
미국	2,658	3,731	2,812	▼25%
태국	1,002	3,340	2,394	▼28%

*2016년 1~11월 기간, ▼는 감소율

출처:인도네시아 노동부

콜리어스는 자카르타 주재원이 임대하기 적합한 부동산 임대 매물이 자원 관련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의 감원 방침 또는 거점 철수 결정에 따라 시장에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최근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적합한 상업 시설과 오락 시설, 골프 코스도 정비되어있어 프리미엄 지역으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자카르타는 부동의 1위 도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꼬망, 짜쁘떼, 뽀독이다, 꼬바요란 바루와 그 인근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자카르타국제학교(JIS)와 브리티쉬 스쿨 자카르타(BSJ) 등 인터내셔널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 주재원들이 체류하는 경우 장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부자카르타의 꼬망, 쥘란닥, 짜쁘떼 지역은 주택 용지가 부족하므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타운 하우스 형식의 주택 건설을 늘리고 있다. 임대료는 부지 면적 300~700 제곱미터(m²), 3~4개 침실, 수영장(Pool)이 갖춰진 주택이 매월 평균 2,500~3,000달러 정도이며, 부지 면적 400~700제곱미터, 4개 베드룸 주택은 매월 평균 3,800~5,000달러대이다.



한편 미국 등 서양 주재원 인구 감소에 따라 특히 주택 등 높은 가격대 주택의 임대료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쥘란닥 소재 ‘아스토리아 레지던스(Astoria Residence)’, ‘이그제큐티브 파라다이스(Executive Paradise)’ 등 고급 주택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 한국과 중국 주재원, 인프라 관련으로 증가세

인도네시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재원 수는 지난해 1~11월 기간 7만 4,183명으로 전년 연간 6만 9,025명 대비 약 8% 증가했다.

국가별 내용을 보면 중국인 주재원이 21% 증가한 2만 1,271명으로 증가율과 주재원 수 모두 높이었다. 이 밖에 한국이 11% 증가한 8,424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데 따라 최근 주재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대로 자원 관련 기업 주재원이 많은 미국은 전년 대비 무려 25% 감소한 2,812명으로 크게 줄었다.

콜리어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인 주재원은 자국의 교육 관계 법률에 따라 자녀를 현지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어 고위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단신 부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장이나 작업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의 주재원 수는 증가했지만,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일본 주재원은 단신 부임 트렌드

한편 일본인 주재원의 수는 2016년 1~11월 기준으로 1% 감소한 1만 2,490명이었다. 미국계 부동산 서비스 대기업 존스 랑 라살(JLL)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일본인 주재원의 경우, 중소기업 주재원 수가 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재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온 경우, 일본인 학교가 있는 자카르타 남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업별로 주재원 규정이 상이하며 최근에는 단신 부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비자 취득을 위해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등으로 비자트립을 가는 비용, 주재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의 경우 이사하는 물건에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신 부임으로 공장이나 직장 근처 아파트에 장기 체류하는 편이 저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날마다 반성하는 왕의 기록, 일성록

『일성록』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써온 일기에서 비롯됐다. 세손으로 책봉된 후 왕위에 오를 때까지 경희궁에서 기거했던 정조는 존현각에서 일기를 써내려갔다. 즉위 후에도 정조는 일기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추후 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규장각에 책임자들을 정했다. 『조선왕조실록』을 국정 운영 자료로써 후세가 판단하도록 임금에게도 비공개로 관리한 것과는 달리 『일성록』은 기록이 왕이나 관료가 국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편집체제를 갖추었다.

1762년(영조 38) 윤 5월 13일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던 날 『영조실록』의 기록이다. 이날 이후 한 동안 『일성록』에는 아무런 일기도 적혀 있지 않다. 아버지의 죽음을 차마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충격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후일 지웠기 때문일까?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안에다 엄히 가두었다. 처음에 효장 세자가 이미 흥(薨)하였는데, 임금에게는 오랫동안 후사가 없다가 세자가 탄생하기에 미쳤다. 천자(天資: 타고난 기품)가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는데, 10여 세 이후에는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고, 대리(代理)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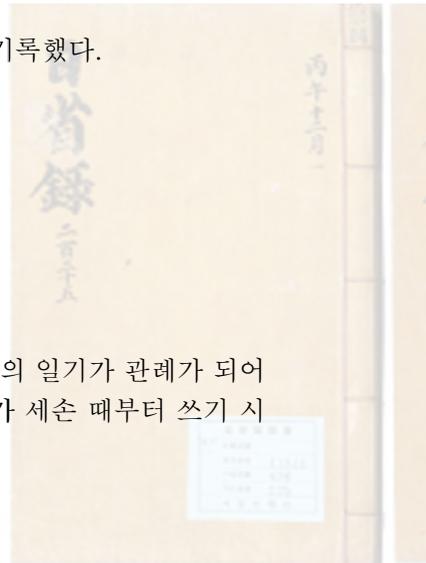


『정조실록』 즉위년 3월 10일의 기록이다. 이날 『일성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종 대왕(영조) 52년(1776) 3월 병자일(丙子日)에 영종이 흥(薨)하고, 6일 만인 신사일(辛巳日)에 왕이 경희궁의 승정문에 즉위하였다. 왕은 영종 28년(1752) 9월 기묘일(己卯日) 창경궁의 경춘전에서 탄생하였다.”

왕이 당시 가졌던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성록』은 정조의 일기이다. 그의 일기가 관례가 되어 1910년까지 후대 임금들이 작성했으니 그리 말하는 것이 옳겠다. 1760년 정조가 세손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승정문에서 즉위하였다. ○ 영의정 김상철 등이 구전으로 달하여, 면복 차림으로 여차(廬次)에서 나오기를 청하여, 답하기를 성복(상복을 입는 절차)을 막하고 나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다. 내가 비록 위로 자전(慈殿)의 하교를 어기지 못하고 아래로 군정(群情)을 거스를 수 없어서 부득이 따르기는 했다마는, 지금 최복(아들이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중에 입는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으려 하니, 차마 못 하겠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해 더욱 감당하기 어려우니, 경들은 아직 강요하지 말라.”



1월 1일의 기록이다. 이후 계속 공부한 기록만 한동안 나온다. 평소 일기쓰기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온 정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 못하지 않은 역사기록이 일기라 여겼다.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강관(講官)을 보내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대전(大殿)께 문안하게 하였다. ○ 상(上)께서 태묘(太廟)와 육상궁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교동(校洞)과 생동(生洞)의 공주 집을 둘러보셨기 때문이다.”

1783년(정조7) 이후로 처리해야 할 정사가 더욱 많아지면서 정조가 직접 기록할 겨를이 없게 되자, 당직하는 규장각 신하에게 지시하여 주계(奏啓), 상소, 경연 대화, 인사기록을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정조의 지시를 받아 수정하여 5일마다 바치게 하였다. 이 책의 체제는 1일 단위로 판면(板面)을 달리하고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조목(條目:여러 가닥으로 나눈 항목)으로 삼았다. 기사의 핵심을 뽑아 강(綱)으로 삼아 찾아보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해당 강 다음에 목(目)을 달아서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동정(動靜)과 언행을 날마다 기록해 둔 것이 있었다. 즉위한 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고 체재를 다듬어서 모든 조치와 정령(政令), 관리의 출척(黜陟)과 상벌을 모두 날짜별로 기록하여 참고하는 자료로 삼았는데, 증자의 ‘날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반성한다’고 한 말에서 따다가 ‘일성록(日省錄)’이라고 이름하였다.”

정조가 자신의 일기로 시작한 『일성록』을 마치 국가 기록처럼 관청인 규장각에 맡겨 기록하게 한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실록이 점차 당파에 의해 편향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일성록』 탄생의 배경을 어렵듯이 알 수 있다.

『일성록』은 영구보존할 역사기록이었지만 항시 열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록이 가진 ‘단한 보존성 또는 비활용성’과 전혀 다르다. 특히, 국왕의 열람이 가능한 아니 국왕이 주도한 역사기록이었다는 점에서 국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국왕이 열람하였을 뿐 아니라, 정조는 신료들도 필요한 경우 열람하여 정책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실록의 편찬도 『일성록』에 따라 체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조실록』부터는 『일성록』 편찬 범례에 따라 편찬되었다. 『승정원일기』에 이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성록』은 총 2,327책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이다. 『일성록』의 25%인 『승정원일기』가 앞으로 완역되는 데 5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일성록』은 언제쯤 번역이 끝날까? 남아 있는 자신들의 역사마저 읽지 못하고 사는 나라, 거기서 문화적 자존심과 국민의 자긍심을 꽃피울 수 있을까?

글:오향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안단테로 연주하는 풍경, 작가 김기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늘 그날이 그날인 일상은 변화를 꿈꾸는 역동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에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온화한 햇살이 발목을 어루만지는 날, 할 수 있는 한 느리게 풍경을 감상하며 아름답고 정적의 기록함 마저 느껴지는 자연으로 몸을 맡겨 보는 것 또한 멋지지 아니한가? 여기 정형화된 작은 풍경이 있다. 이 거리와 풍경은 작가의 내면인 마음의 풍경이다.

김기주의 풍경 작업은 구체적인 장소와 지명이 있는 사실적 풍경은 아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고향 산수를 담아내는 것이니 자연과 우리의 서정적 교감이 이루어진 가슴속의 고향 산수를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처럼 작가는 안단테로 자신의 가슴을 조용히, 느리게 산책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각가라는 여과지를 통과한 작품은 단순화 시킨 형상과 표면처리를 통해 열려있는 양감으로 드러난다.

마음의 풍경은 지나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변해버린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이 되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도 한다.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은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순수한 조영적 힘은 그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기억과 성실함이 빚어낸 힘이다.

예술을 알아가면 삶이 점점 풍요로워 진다.

그 모든 작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기쁨이 될 때도 슬픔이 될 때도 있다.

하나의 작품을 보고도 각자의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이 작품을 보며 현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녹이기를 바란다.

‘작가는 화관을 대하며 숙련된 장인 정신보다 새롭고 독특한 창작 정신이 필요하고 관객은 작품을 보며 작가의 노력보다 창작의 독창성을 보아야한다.

땀과 노력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이고 창작은 익숙한 땀방울의 결실을 넘어 익숙치 않은 새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Rosenberg)

그러나 땀과 노력, 익숙한 땀방울이 우선이다.

글, 권미선 (인니미협)

땡기열로 체험한 자바사랑



이 태 복 / 시인(한국문협 인니지부 사무국장)
taeboklee@yahoo.com

일 때문에 살라띠가에 살면서 자카르타 지인들 만
남 일정에 무리했었나보다.

자카르타 공항에서부터 코가 답답하고 무언가
조짐이 있었는데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솔로 공
항에 도착하니 몸이 영 무거웠다. 살라띠가에서
한 시간 거리를 마중 나온 집주인 아들 수나르씨
가 나의 몸 상태를 읽고는 집에서 안마사를 대기
하라고 전화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
자마자 순식간에 오한이 들어 몸이 떨리고

“따다닥 따다닥” 아래위로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뿔사! 오랜 인도네시아 경험상
Demam berdarah(땡기열) 증상이라고 스스로
진단해 본다. 땡기열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열대
지방에서 많이 발병하는 병이다.

몸에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모기에 물린다든지
박테리아로 인한 발병 원인이 있다. 땡기열의 증
세는 체온이 37.5를 넘어 가면 투통 근육통 관절

통 온몸이 아프고 때로는 눈에 통증까지 오는 증
세가 있다. 춥고 더움이 반복되며 상태에 따라 회
복기간이 보름씩 가는 경우도 있다. 회복하는 동
안 고통이 심하여 땡기열로 인하여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에도 이렇게 시작한
demam berdarah로 보름을 앓아누운 적이 있다.
물을 펄펄 끓여 목욕을 했지만 수분이 마르며 열
때문에 오한이 더 했다. 급히 이불 밑으로 들어갔
다. 평상시 쓰던 담요는 어림없다.

두꺼운 이불을 하나 더 꺼내 묻히듯 덮었다. 심한
오한에 모든 게 귀찮고 안마사도 불편했다. 얼마
나 추운지 누가 이불을 들칠까 두려웠다. 온몸이
냉동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나마 춥기만 하지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안마사를 돌려보낼까 하다가
수나르씨의 성의가 무시 되는 것 같아 몸을 맡
겼다. 상체를 이불로 덮어 쓰고 다리만 맡겼다. 그
것도 한쪽 다리 주무르는 동안 한쪽 다리는 담요
로 덮어 달라고 했다. 안마사가 만지는 부위마다

아팠다. 마치 고문을 받는 기분이 들 정도였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혈액순환이라도 잘 되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새날이 밝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일으킬 수도 없고 귀만 열려 있었다. 몸이 아프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문이 열린다.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아름다웠다.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새소리,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대는 닭소리, 어미닭을 졸라대는 듯한 끊임없이 쫓알대는 병아리 소리, 깊은 골짜기 계곡 물소리처럼 큰 나뭇잎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동네 어느 집에서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소리, 동네 아이들 떠드는 소리, 가깝고 멀리서 들리는 서정의 소리가 참 많았다. 들릴 듯 말듯 아련한 소리들을 붙들여 악기에 옮기면 선율이 되겠다 싶었다.

자카르타에서 들리던 경적소리, 마음을 팔듯 물건을 팔며 흥정하는 소리는 없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 이곳은 행복이 밀려오는 지상천국이다. 천국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자동차로 12시간이면 오는 이곳 살라띠가에 있었다. 아침에는 밥을 지어 주인집 마당에 자라는 싱콩 잎과 호박잎을 데쳐서 양념장으로 쌈을 싸 먹고 한 끼 때웠다.

아침에 출근을 못하자 주인집에서 눈치를 챘다. 동정의 따뜻한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심에는 백밥에 생선구이랑 깡꿍을 가져왔다.

저녁에는 두부 튀김이랑 싱콩 잎 튀김에 미아얍(닭국수), 그다음 날 아침에는 흰죽을 끓여왔다.

아침저녁 시도 때도 없이 흥차를 끓여 오고 땀기열에 좋다며 생강차와 속히 기운이 회복되라며 외양관에서 생젓을 짜다가 생강우유를 끓여 왔다. 아플 때는 무엇이든 잘 먹어야 한다며 당부도 잊지 않았다.

딸,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녀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음식과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수나르씨가 밤늦게 왕진 의사를 불렀다. 청진기 진료와 진맥이 이어졌다. 혈압측정에 혈당측정을 했다. 콜레스테롤 검사까지 해주는 친절을 보여 주었다. 모두 정상이란 다. 주사와 함께 약을 처방해 주었다. 주사를 맞고 의사가 처방 해준 약들

을 먹고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죽음보다 깊은 잠이 들었다. 침대 앞에서는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와 환담을 나누었다. 자바인들의 나긋나긋한 이야기 소리는 자장가로 들렸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웃들이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 출입구문은 잠겨있었고 열쇠는 실내 탁자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국에 있는 권사 아내와 딸, 자카르타에 있는 아들과 공유하고 있는 가족 카톡 방에 아프다고 했다. 그냥 “아프지 마세요.” 라는 딸의 메시지 하나만 있었다. 인심은 역시 이웃사촌이 최고다.

자카르타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 시골에서 있다가 티프스까지 겹치면 힘들 수 있으니 빨리 내려오란다. 이 상태로 자카르타 가는 것도 무리다. 간다 해도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줄 것 같다.

바쁜 도시에서는 아픈 것도 잠이 될 수 있다.

자카르타에는 서민 살기가 힘들다.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좋은 곳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년 전 경험으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이제 이곳 자바(살라띠가)사람인데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몸을 일으켜 보았다.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동네 산책을 나갔다. 세상이 어제와 다르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소중하다. 바람소리 새소리는 음악 소리다. 신선한 공기가 감사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고 자바의 선한 미소들만 가득하다. 바람이 불어 왔다.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한가 보다. 다시 한기가 몰려온다.

얼른 돌아와 이불 밑으로 몸을 맡겼다. 그것을 본 수나르씨가 의사에게 전화를 해 링거를 부탁한다. 의사가 쏘르르 달려 왔다. 진찰결과 어제보다 몸 상태가 한결 좋아졌다. 어제 검사에서 보니 몸이 건강 하단다. 나에게 땀기열은 과로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지병이 없는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봉사하는 일, 예술 활동에는 열정을 쏟았지만 내 건강을 위한 운동에는 소홀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지병 없이 젊음을 지탱해 온 것은 기적이다. 이제 내 육체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부러워하면 닮는다 했던가. 착하고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자바인들을 사랑하며 연구하고 있다. 나도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자바인이 되고 싶다.



글: 최서혜

12. 티켓팅 예약 및 숙박업체 예약하기

#한국으로 휴가 계획을 세운 A씨가 여행사에 전화를 건다. 여행사 직원 B가 전화를 받는다.

B: Selamat Siang, Ini Jakarta Travel. Ada yang bisa saya bantu?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트래블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 Siang. Saya mau booking tiket pesawat ke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B: O gitu. Mau berangkat tanggal berapa? Untuk berapa orang?

(아, 그러시군요. 몇 일에 출발하시나요? 몇 명이요?)

A: Berangkat tanggal 3, bulan April. 2 orang dewasa. Berangkat dari Jakarta.

(4월 4일 토요일 출발이에요. 성인 2명이요. 자카르타 출발이에요.)

B: Ditunggu sebentar ya. Saya cek dulu.

(잠시 후) Terima kasih, sudah menunggu. Saya sudah cek schedule, sekarang dah full-book pada tanggal 4.

Kalau tanggal 3, hari jumat masih bisa booking. Bagaimana?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체크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체크해보니 지금으로서는 4일이 이미 풀 부킹 상태예요. 3일 금요일은 아직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A: Oke. Kalau gitu tanggal 3 aja. (네 그럼 3일로 해주세요.)

B: Tiketnya cuman untuk sekali jalan atau PP?(atau pulang pergi?)

(티켓은 편도만 끊으시나요? 아님 왕복으로 끊으시나요?)

A: Mau beli tiket pulang pergi dua-duanya. Pulang dari Incheonnya pada tanggal 10 April.

(왕복행 티켓을 끊을거예요. 두 명 다요. 인천에서 4월 10일에 귀국입니다.)

B: Oke, pak. Saya dah booking tiket pulang-pergi untuk 2 orang.

Minta kirim file fotokopi paspor lewat email, ya.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 2분의 왕복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메일로 여권 복사본을 보내주세요.)

A: Ya. Terima kasih. Nanti saya bayar di tempat saja. Totalnya berapa, ya?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곳에서 결제할게요. 총 얼마죠?)

B: Totalnya 1500 dollar. Bisa bayar dengan rupiah juga.

(총 1500달러입니다. 루피아 결제도 가능합니다.)

***PP: ‘빼빼’** 라고 발음함. 왕복이라는 의미

****bayar di tempat :** 현장 결제

#W호텔 연간 회원권이 있는 A씨가 1박 2일 숙박권을 사용하려고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A : Halo, Saya mau reservasi untuk kamar.

(안녕하세요. 호텔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B : Halo, Bapak mau pakai(menggunakan) voucher member?

(안녕하세요. 멤버십 바우처 사용을 원하시나요?)

A: Iya. Saya punya kartu member hotel W. Bisakah pada tanggal 25?

(네. W호텔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25일 가능할까요.)

B: Bisa. Atas nama siapa?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A: Atas nama Gong Yu.

(공유입니다.)

B: Sudah, Mr. Gong. Jangan lupa nanti pada tanggal 25, Mr. bawa kartu member dan vouchernya juga, ya. Dan pemegang kartu member wajib hadir pada saat check-in untuk menunjukkan kartu identitas sesuai dengan yang terdaftar di kartu membership. Terima Kasih.

(네, 예약이 끝났습니다. 공유님. 25일에 멤버십 카드와 바우처 가져오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카드 소지자 본인이 체크인 시 반드시 함께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멤버십 카드 정보가 같은 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길다와 길이? 물리적 표현과 시간적 표현의 차이

Panjang과 **Lama**, 둘 다 길다?

긴 물건이나 ‘길다란’ 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panjang**, 긴 시간이나 ‘늦다, 느리다’ 를 의미할 때는 **lama**를 쓴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Kok lama, belum datang**(늦네. 아직 안 왔어)” 라고 표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물을 때는 “**Berapa Lama?**” 라고 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Jarak**과 **Jangka**가 있다.

Jarak은 거리를, **Jangka**는 시간을 의미한다. “거리가 몇 킬로 정도 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Jaraknya kira-kira berapa kilo, pak?**”이라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라는 시간적 표현을 할 때는 **Dalam jangka waktu panjang**(장기적으로), **Dalam jangka waktu pendek**(단기적으로)라고 쓴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라는 표현은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이 된다.

#눈이 따갑다? 눈이 무겁다? 눈과 관련된 표현

Mata는 기본적으로 ‘눈(eye)’ 이라는 뜻이다.

Matanya pedas : 눈이 맵다. 눈에 땀 등이 들어가 따갑거나 매운 상태

Matanya berat : 눈이 무겁다 = 졸리다. 예) **Aduh! Mata saya terasa berat.** 아 눈이 피곤해 졸려요. 이 밖에 **Mata-mata**(스파이), **Air mata**(눈물), **Mata air**(샘, 우물), **Mata ikan**(티눈), **Mata dekat**(근시), **Mata genit**(웁크), **Mata pisau**(칼날), **Telur mata sapi**(계란 노른자), **Mata uang**(동전, 화폐단위) 등이 있다.

#고장났어요

Rusak : 고장나다는 표현이다. 더욱 세련된 표현은 sedang diperbaiki(수리 중이다), Sedang diproses(처리 중이다), sedang direnovasi(보수 중이다), sedang dikonstruksi(건설 중이다) 등이 있다.

즉, 목적어+sedang(현재) + di(수동) 동사 원형으로 간단한 예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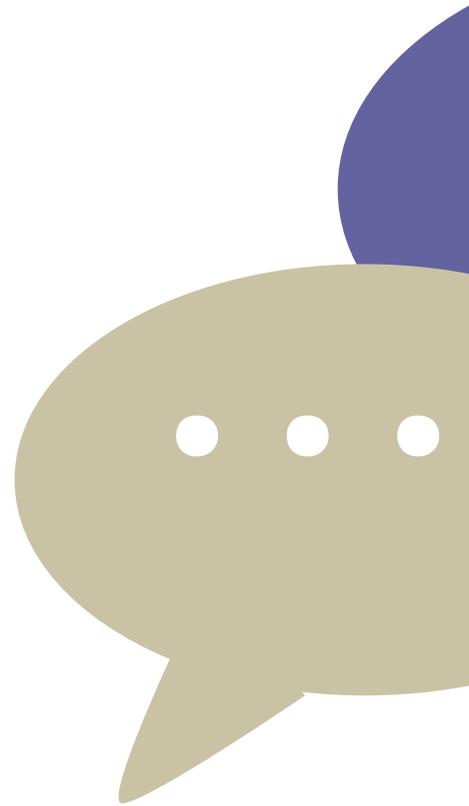
Apartemen ini sedang direnovasi.

이 아파트는 현재 보수 중이다. 목적어인 이 아파트가 현재 보수(renovasi)되고 있다(수동)는 뜻이다.

#~이후로는, ~이후부터는

Sejak, Semenjak이 있으나 실제로는 sejak을 더 자주 사용한다.

Sejak saya datang ke sini, saya sering ketemu dengan dia. (내가 여기 도착한 이후, 그와 자주 만나고 있다.)





#~까지, ~까지 유효하다.

다시 만납시다. = **Sampai jumpa lagi.** 계약서 등에 자주 나오는 s/d은 **sampai dengan**을 줄인 말이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는 문장은 '**Kontrak ini berlaku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7**' 이다.

#날짜와 요일

날짜는 **tanggal**, 요일은 **hari**이다.

A : **Hari ini tanggal berapa?**(오늘이 몇 일이지?)

B : **Hari ini tanggal 14 April, hari jumat, Hari ini Jumat Agung.**

(오늘은 14일이야. 금요일이고. 오늘은 성 금요일이야.)

A: **Hari apa yang paling baik?** (무슨 요일이 제일 괜찮으세요?)

B: **Hari apa saja boleh.** = **Hari apa saja tidak (ada) masalah.** (무슨 요일이든 괜찮아요.)

A: **Besok ada waktu?** (내일 시간 있으세요?)

B: **Ya, Besok saya tidak ada acara apa-apa.** (네, 내일 별 스케줄 없어요.)

*참고! **Tanggal**(날짜)를 묻는 질문엔 숫자를 말해야 하니 가격이나 수 따위를 묻는 의문사 **Berapa?**가 쓰이고, **Hari**(요일)를 묻는 질문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 **Apa?**가 쓰인다.

♪요일을 외우는 동요♪

Senin, Selasa, Rabu, Kamis, Jumat, Sabtu, Minggu itu nama-nama hari.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건 요일 이름들 ~♪

인도네시아 민법(1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1.7.6. 위임관계 종료(위임장의 효력 상실)

11.7.6.1. 위임자가 위임장을 취소하고 피위임자에게 취소 사실을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하면 위임자의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나 취소 불능 위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장 취소를 취소 통보해도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 현실적으로는 거래 관계에는 취소 불가 위임장이 많이 있다.

11.7.6.2.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을 상실한다. 차명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면 실제 주인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임장이 실효하므로 실제 주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11.7.6.3. 피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임장이 실효한다.

11.7.6.4. 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임장은 실효한다.

11.7.6.5. 피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임장은 실효한다.

11.7.7. 위임 시 유념해야 할 사항

11.7.7.1. 위임장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뿐이며,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위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거래 관계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은 양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사전에 분명하게 약정하여 사전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이 한다.

11.7.7.2. 계약 상대에게 계약할 내용에 대하여 위임장을 해 주는 것은 위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계약은 가능하면 위임하지 말고 계약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7.3. 위임장은 취소시키지 않으면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므로 위임 내용이 이행되면 곧 위임장을 취소시킴이 바람직하다.

11.7.7.4. 무기한 유효 위임장을 주지 말고 시한부 위임장을 주어 정한 시기가 지나면 위임장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한다.

11.8. 채무 보증 계약

채무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이행이 되도록 채무자 이외에 제삼자가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법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보증인을 가끔 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자식, 형제 혹은 친구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적인 인간관계나,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회사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차입 자금을 대한 채무 보증(Personal Guarantee)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아는 전문 경영인 기업인들 중에 한 사람은, 대기업의 대표 재직 시 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미 수년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불려 다니며 고초를 겪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아예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해서 영구 귀국해버렸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손실을 면하기가 힘들어진다.

11.8.1. 채무보증의 특징

11.8.1.1. 채무보증은 부속계약이다.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증도 있을 수 없다.

11.8.1.2.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똑 같이 상환 의무가 있다.

11.8.1.3.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p인데 채무보증은 2억 Rp로 할 수 없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우에는 원금,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의무가 부과된다.

11.8.1.4.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11.8.1.5.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8.1.6. 채무 보증은 상속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11.8.1.7.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11.8.1.8.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11.8.1.9.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Rule이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11.8.1.10.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11.8.2.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11.8.2.1. 보증인이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채무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11.8.2.2.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11.8.2.3.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항변권이 없다.

11.8.2.4. 채무자가 법인이며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항변권이 없다.

11.8.2.5.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최고항변권이 없다.

(다음 호에 계속)

2017년 제1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안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와 한인포스트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해외에서 한국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하고자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인과 만 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 1회 적도문학상을 개최합니다. 인생의 향기가 담긴 자신만의 글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곧 문학이 됩니다.-

1. 공모부문 : 시, 수필, 소설, 희곡
2. 응모 대상: 1.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2. 만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대학생/ 외국인
3. 주 제 :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외국인 = 한국 이야기
4. 접수 기간 : 2017년 2월 10일~3월 20일 / 발표: 2017년 4월 10일 예정
★ 시상식은 4월 하순경 - 날짜는 추후공지 예정
5. 응모 방법 : ★시:자유시 3편이상 ★수필: 2편(1편분량-A4용지11포인트 3쪽내외)
★소설 및 희곡: 2편(1편 분량-A4용지 11포인트 5쪽 내외)
6. 제 출 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시상 종류	인 원	시 상	시상 대상	시상 내역
대상(적도문학상)	1	한국문인협회 본부 이사장상	성인 1명	상장 및 상금 US1,000
최 우수 상	6	(1) 재인니한국대사상 (2) 아세안대사상 (3) 재인니한인회장상	성인및학생부문 각2명-총6명	상장 및 부상
우 수 상	8	(1)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2)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3) 한인포스트 언론상 (4) 글로벌기업문학상	성인및학생부문 각2명-총8명	상장 및 부상
특 별 상	4	(1) JKT한국국제학교장상 (2) 인지현지대학 총장상	성인및학생부문 각2명-총4명	상장 및 부상
장 려 상	4	한국문협 인니지부상	성인및학생부문 각2명-총4명	상장 및 부상

★대우 및 특전: 대상(적도문학상) 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이상 당선자도 한국 문단에 등단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당선작은 매년 4월에 발행되는<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되며 수상자는 한국 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정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적도문학상 각 부문 학생 수상자는 한국대학입시에 반영되는 한국문협-인도네시아지부 수상증명서가 발행됩니다.

- ★주의 사항: 1. 응모작품은 지면 및 사이버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을 취소하며 법적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응모작의 맨 앞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품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 한인포스트

김경애 강사의 한지공예교실을 소개합니다!

한인회관(2층)도서관에서 2월3일(금요일)부터 한지공예에 관심있으신 분들과 함께 한지공예수업을 시작합니다. 주2회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소품공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료비 본인부담)

연락처: 0815 1941 1756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lkcs.kr

43회 열린강좌

바디토크, 나의 몸 디자인

-인도네시아 기후·생활에 맞는 근력 및 스트레칭(소도구 활용)

일시: 2월 18일 (토) 10:00-12:00

강사: 이승아

*총신대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생활스포츠지도사 심사위원 외

44회 열린강좌

자바인의 종교와 생활양식(제 3강)

일시: 3월 4일 (토) 10:00-12:00

강사: 노경래(전 포스코인도네시아자원개발 법인장)

*신청:밴드<http://band.us/n/afa9TdTcybG90>

(SMS/KT) 안미경수석팀장 081514216766 / 08161909976

*회비: 10만Rp (비회원 15만Rp)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한인회문화회관 1층)

Jl. Gatot Subroto Kav.58 (Korean Embassy, Rumah Sakit Medistra 사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채무자 파산시 개인 보증인(Penjamin Pribadi / Personal Guarantee)의 지위 및 파산법 (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소개

Q

Cikarang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매형이 5년 전에 BCZ은행에서 회사 대출을 받으면서 단순한 개인 보증인이라며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아내 몰래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매형 회사가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BCZ은행에서는 저에게 채무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형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매형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KUH Perdata) 제 1831조부터 제 1850조와 그리고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는 개인 보증인의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한 조항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먼저 담보로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후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이 점에서는 연대 보증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자카르타 슬라탄에 거주하는 김부자입니다.

상기 문의 하신분처럼 저 역시 2010년에 동생 회사의 자재 납품 현지업체에 개인 보증인으로 자재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작년 9월에 동생 회사가 파산선고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자재 납품회사에서 동생 회사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받았는데 금년 1월에 제 개인을 파산신청 하겠다고 기재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이 그 회사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될 수 있나요?

A

Q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 의하면 개인 보증인을 파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민법(KUH Perdata)의 여러 조항을 보더라도 개인 보증인의 의무가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 돼 있으며 또한 여러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 보증인을 채무자인 회사와 함께 파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채권자인 자재 납품 현지 회사에 의하여 동생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인으로서 파산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A

상기 2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개인 보증은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보증 서명 당시의 친인척의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는데 차후 그 보증으로 인하여 본인이 파산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에 흠이 되고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숙고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Tips 1. 파산법(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

1998년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후 많은 기업과 개인이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그 피해자의 일부인 강대국에 의하여 강력하게 법 제정 압력을 받아서 제정된 총 308조로 구성된 법이 파산법입니다.

파산 신청 접수후 20일 이내 1차 공판 개시 그리고 신청 접수후 60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도록 명확하게 기간이 지정되었으며 파산 결정 후 채무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을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Tips 2. 우리 동포 기업간에도 채권 채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양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는 파산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 하다가는 소액의 채무임에도 갑과 을의 지위라는 사소한 감정에 기인하여 결국 사업체 자체를 파산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자카르타의 또 다른 허니문



글: 엄재석
PT. ACE E&C

“인해촌에 뜨는 해” <http://blog.daum.net/kackanjae>

드디어 아내가 인도네시아에 온다. 이를 위해 함께 살 보금자리로 남부 자카르타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Kemang 인근에 월세 아파트까지 준비했다. 물론 내 자신이 현장생활을 하던 때에는 몇 번이나 짧게 다녀가긴 하였지만 이번에는 함께 살기 위해 오는 것이다. 나 홀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 나이에 ‘허니문’을 다시 시작한다니 어찌 가슴이 설레지 아니 할까.

5년 전에도 차갑게 식어버린 국내 건설경기로 인해 퇴직자의 재취업은 동장군 날씨만큼이나 녹녹치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생면부지의 한인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물론 여기에는 본인의 건설관련 블로그와 페이스북 북 활동을 통하여 나를 알린 것이 그 연결고리가 되었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1월의 강추위 속에 고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니 야자수가 지친 나를 반겨 주었다.

찌꺼묵에서 수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벗었던 안전모를 다시 쓰게 되었다. 처음 낯설음도 잠깐 전혀 모르던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며 현지문화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고속도로는 그 형상이 만들어 지고 있었다.

두 번째 현장으로 수마트라 북부에 있는 살룰라 지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였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연된 공정을 정상화시켜 놓았을 때 건설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고르에서 다른 고속도로공사를 하였고 지금은 자카르타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 동안 내가 다녔던 현장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힘들었지만 나 홀로였다. 하지만 수도 자카르타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할 정도로 생활수준이 높다. 하여 동반자 비자로 아내를 초청하였고 이제 소풍가는 아이처럼 설렘 속에 아내의 도착을 기다린다.

아내가 오면 결혼 후부터 도맡아 왔던 가사를 있게 해주고 싶다. 주일에는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도네시아어 과정을 배우게 하여 언어의 장벽을 뚫어 주어야 한다.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시켜 해외생활로 인하여 생기는 빈 시간을 채워 주리라. 삭막한 한국과 달리 따스한 기후만큼이나 순박하고 정감이 가는 이국문화에 심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싶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주위를 거닐고 밤에는 자카르타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둘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리라. 또한 국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상시 푸르른 필드에서 함께 라운딩하며 둘만의 낭만을 만들고 싶다.

지난 4년이나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혜의 휴양지 발리에는 국내에 있는 아이들까지 불러서 함께 가고 싶다. 유적지로 유명한 중부 자바의 보로부두르 사원에도 올라가고 빨라우 스리부섬의 해상 리조트에서 석양을 맞보리라. 고산지대인 Puncak의 시원한 공기도 맞보며 산 위의 펜션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 가끔씩은 고국의 친구들도 초청하여 인도네시아를 알리며 오랫동안 생각했던 은퇴자촌의 꿈도 공유하리라.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각종 사회기반 건설 사업에 기여한 한국 기술인이 되고 싶다.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야 할 공사도 많고 개발해야 할 사업도 다양하다. 하여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인의 마지막을 인도양의 낙조처럼 멋있게 장식하고 싶다.

하지만 일에 함몰되어 가정을 잊었던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부부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고 싶다. 어찌면 아내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자카르타의 또 다른 허니문’을 위하여...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는 생활정보란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자 합니다. 전화번호 게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및 업체는 2월, 3월 두 달간 한인뉴스로 연락을 주
시기 바랍니다. (Tel. 021-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준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내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lo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랑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꿀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꿀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땅그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Open House: 25 Feb | 28 Apr 2017

9am to 12pm

Contact: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	--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스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	-----	----------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건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북궁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창립 24주년 행사

아시아진주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상의 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별 할인행사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2월 28일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감사 특별 할인 및 한정 판매

남양진주(10-17mm) 50점

다이아(3부-1캐럿) 10점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수출·무역

HP. 0816-873-176,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256-6862, +82-10-9824-885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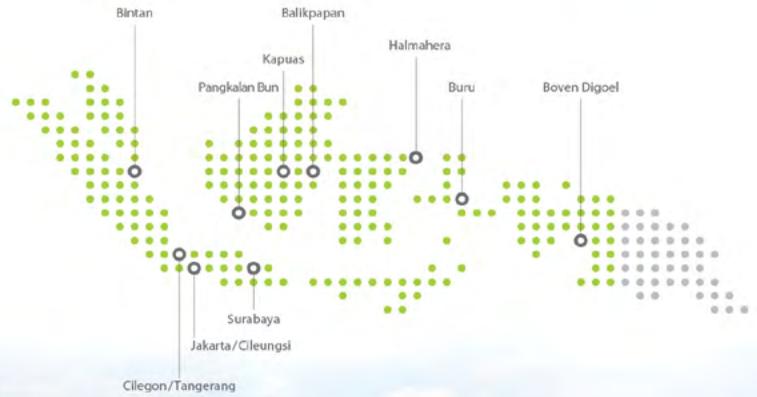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www.kideco.com
marketing@kideco.co.id

